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명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성 민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이 명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 성 민

인 준 서

김성민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지각대상자로 하여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및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추론의 차이를 알아보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은 준 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착용한 여성의 사진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문항, 자극물의 연령과 월 소득 추론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극물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복단서의 변인을 변화시켜 제작하였으며, 검정 드레스를 착용한 여성의 전신사진(8×20cm) 24개와 검정 드레스(라운드 넥라인, 쇼트 슬리브)와 액세서리를 착용한 여성의 상반신 사진(10×15cm) 18개로, 총 42개였다. 변인은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실루엣, 스커트길이, 넥라인, 소매)와 액세서리(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종류, 크기, 색과 착용여부에 따라 변화시켰다. 측정도구는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 평가에 사용된 의미미분척도 30개 항목으로 7점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자극물의 연령과 월 소득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각각 1문항씩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 646명이었다.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계수 분석, 일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사원변량분석, t -test,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인분석 결과 검정 드레스의 이미지 차원은 개성, 여성성, 전문성, 현대성, 활동성의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액세서리 착용의 이미지 차원

은 전문성, 개성, 여성성, 매력성, 귀염성의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A라인 스커트 실루엣은 전문성과 현대성이 높게 평가되었고,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은 여성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미니 스커트는 개성, 현대성, 활동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전문성은 낮게 지각되었다. 무릎길이 스커트는 전문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개성, 현대성, 활동성은 낮게 지각되었다. 라운드 넥라인은 보트 넥라인보다 활동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슬리브리스는 쇼트 슬리브 드레스보다 개성, 현대성, 활동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A라인 스커트 실루엣인 경우에는 보트 넥라인이 조합되었을 때,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인 경우에는 라운드 넥라인이 조합되었을 때 개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셋째,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개성과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귀염성은 낮게 지각되었다.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전문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고,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작은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귀걸이가 없는 경우보다 더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보다 전문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고,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흰색 코사지를 착용하거나 코사지가 없는 경우보다 더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귀걸이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목걸이와 귀걸이를 둘 다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이 매우 낮게 지각되었다. 목걸이 및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개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목걸이 및 큰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는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매력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넷째, 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스커트 길이의 선호도는 미니>무릎길이>미디 스커트 순으로 높았다. 목걸이를 착용하는 것보다 착용하지 않는 것이 더 선호도가 높았고, 코사지는 비착용>흰색 코사지>빨강 코사지 순으로 선호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목걸이와 귀걸이는 두 가지를 다 착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착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목걸이와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고 작은 귀걸이만 한 경우는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목걸이 및 큰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다섯째, 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A라인 실루엣은 섹시하고 지성적이며 모던한 것으로 지각되었고,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은 눈에 띄고 여성적이며 발랄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스커트 길이는 짧을수록 섹시하고 현대적이며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무릎길이 스커트와 미디 스커트는 책임성 있고 전문직 같으며 지성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슬리브리스 드레스는 쇼트 슬리브보다 개성 있고, 현대적이며, 도회적이고,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액세서리의 경우, 목걸이를 했을 때 목걸이를 하지 않은 것보다 강렬하고 눈에 띄지만, 젊어 보이는 이미지와 귀여운 이미지는 낮게 평가되었다.

여섯째, 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플레어 스커트 착용자는 A라인 스커트 착용자보다 더 젊게 추론되었다. 스커트 길이는 짧을수록 더 젊게 추론되었고, 슬리브리스 드레스 착용자는 쇼트 슬리브 드레스 착용자보다 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액세서리의 경우, 목걸이를 했을 때는 목걸이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연령과 소득이 모두 높게 추론되었고, 귀걸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착용했을 때보다 더 젊게 추론되었다. 상호작용효과에서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연령이 26.7세로 가장 높게 추론되었고, 귀걸이와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4.5세로 연령이 가장 낮게 추론되었다.

일곱째,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 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선호도에는 여성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 현대성, 활동성, 전문성, 개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액세서리 착용자의 선호도에는 매력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 귀엽성, 전문성, 여성성, 개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는데, 개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개성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네크라인, 소매의 변화와 액세서리 착용은 검정 드레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는 단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검정 드레스는 디자인 요소와 함께 액세서리 착용에 따라서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목 차

논문개요	i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2. 연구의 목적	4
II. 이론적 배경	5
1. 대인지각 이론	5
2. 감정 의복의 이미지 지각	11
3.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의복의 이미지 지각	26
4. 액세서리 착용과 이미지 지각	37
III. 연구방법 및 절차	46
1. 연구문제	46
2. 측정도구	47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56
IV. 연구결과 및 논의	57
1. 감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57
2. 감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62
3.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66
4. 감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74

5.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	79
6.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	86
7.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 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90
V. 결론 및 제언	92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감정 의복 이미지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22
<표 2> 실험설계의 변인 조작 내용	48
<표 3> 감정 드레스 자극물의 변인 조작 내용	52
<표 4> 액세서리 자극물의 변인 조작 내용	52
<표 5> 감정 드레스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58
<표 6>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60
<표 7> 감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63
<표 8>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67
<표 9> 감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74
<표 10>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76
<표 11> 감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	80
<표 12> 목걸이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	84
<표 13> 감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 ..	86
<표 14>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	88
<표 15> 감정 드레스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차원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	90
<표 16> 액세서리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차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91

그림 목 차

〈그림 1〉 Rogier van der Weyden. <i>Portrait of a Lady</i>	13
〈그림 2〉 Sofonisba Anguissola. <i>Infanta Isabella Clara Eugenia</i>	13
〈그림 3〉 Jacob Jordaens. <i>Portrait of Catharina Behaghel</i>	13
〈그림 4〉 Mourning dress of Queen Victoria	13
〈그림 5〉 Chanel, <i>Little black dress</i>	16
〈그림 6〉 Chanel, <i>Day ensemble</i>	16
〈그림 7〉 Elsa Schiaparelli, <i>Evening dress</i>	16
〈그림 8〉 Christian Dior, <i>New Look</i>	16
〈그림 9〉 Audrey Hepburn, <i>Breakfast at Tiffany's</i>	18
〈그림 10〉 Courrèges, <i>Black dress</i>	18
〈그림 11〉 Azzedine Alaïa, <i>Wool jersey dress</i>	18
〈그림 12〉 한국 여성의 표준 얼굴형	50
〈그림 13〉 검정 드레스 착용 자극물	53
〈그림 14〉 액세서리 착용 자극물	54
〈그림 15〉 개성 지각에 대한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과 네크라인의 상호작용형태	65
〈그림 16〉 전문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68
〈그림 17〉 여성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69
〈그림 18〉 매력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70
〈그림 19〉 개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71
〈그림 20〉 매력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	73
〈그림 21〉 액세서리 선호도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77
〈그림 22〉 액세서리 선호도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77
<그림 23> 연령주론에 대한 귀결이와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8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서로 첫인상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외모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내리게 하는 중요한 시각적 단서가 된다. 한 번 형성된 첫인상은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즉각적인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의복이나 액세서리와 같은 외모단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의복 관련 요인으로 의복유형, 의복스타일, 의복색채 등이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그 중에서도 의복색채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디자인 요소로서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각 시대와 국가, 민족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검정은 대부분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색상이었으며, 패션의 연대기를 지배해온 주요 색상이었다(이정미, 조진숙, 2006). 의복에 나타난 검정색 이미지는 19세기 말 이전까지는 성직자나 남성 의복의 전유물로서 금욕, 힘, 권위 등을 상징하거나, 상복에 나타난 죽음, 애도, 슬픔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었다. 20세기 초에 이르러 검정 의복은 이전의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련된 여성 의상에서 표현되어 우아함, 단순성, 현대성 등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다. 특히 1926년에 발표된 코코 샤넬(Coco Chanel, 1883~1971)의 리틀 블랙 드레스(little black dress)는 검정을 상복이나 성직자들의 의복과 같은 어두운 세계에서 밝은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어 파리인들의 시크(chic)한 의복의 필수 요소로 변모시키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당시 히트했던 포드자동차 '모델 T' 만큼이나 많이 팔려 일명 '포드 드레스(Ford dress)'로 명명(Ludot, 2001)되기도 한 리틀 블

랙 드레스는 검정을 가장 현대적인 색으로 해석한 아르데코 운동과 기능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었다(김기례, 채금석, 2004). 이후로도 심플한 검정 드레스는 매 시즌마다 역대 디자이너들의 패션쇼에 그들만의 시각으로 재해석되어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현재까지도 꾸준히 사랑 받아온 클래식 아이템이 되었다.

1954년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 1905~1957)는 “검정은 낮이나 밤, 상황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색이다. 리틀 블랙 드레스는 모든 여성들의 필수품이며 나는 검정에 관한 책을 한 권 쓸 수도 있다.”(Mendes, 1999)라고 함으로써 검정 드레스에 대한 애착과 유용성에 대해 시사했다. 의복 색채로서 검정은 감각적으로 따뜻하며, 수축색이며 중량감이 있어(Birren, 2012), 날씬해 보이기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아온 의복 색채이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레드 카펫 패션 스타일의 드레스 색채 중 검정 드레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민아, 고헌진, 2013), 의복 색채로 검정과 같은 무채색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류숙희, 최재란, 박종희, 2001: 이명희, 김미영, 2003).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는 검정이 더 이상 어두움, 악마, 비애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닌 모든 여성들의 사랑을 받는 필수적인 의복 색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검정 드레스는 대표적인 클래식 아이템으로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액세서리는 매력적이고 개성있는 이미지(최수경, 2010)나 귀족적이고 화려한 이미지(최경원, 김세나, 유재부, 2005) 등 전체적인 이미지 연출에 변화를 주는 수단이 된다. 1920년대 샤넬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된 코스튬 주얼리(costume jewelry)는 리틀 블랙 드레스와 같은 단순한 클래식 의복과 함께 착용됨으로써 의상의 단순함과 평범함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하며 대중들에

게 큰 호응을 받았다(김수영, 이연희, 2010). 이와 같이 액세서리는 단순한 검정 의복에 액센트를 주어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검정은 주위의 색을 돋보이게 하는 주목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Birren, 2012), 액세서리를 돋보이게 해주는 바탕색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검정 의복에 관한 선행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한 복식사적 고찰(곽혜선, 금기숙, 1998; 문혜정, 김민자, 1998; 박혜원, 김여숙, 2001)과 현대 패션에 나타난 검정 의복의 이미지를 분류하는 연구(김선영, 2007; 김기례, 채금석, 2004), 검정 의복의 색채이미지에 관한 연구(유금화, 2001; 윤지윤, 김영인, 2005; 이정미, 조진숙, 2006), 무채색 의복의 형태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최수경, 강경자, 2004; 고순영, 박문희 2010)에 관한 연구가 각각 이루어져 왔다. 또한 액세서리에 관한 선행 연구는 액세서리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이은희, 전경란, 2001; 신주동, 최종명, 2008; 최수경, 2010)나 장신구가 의복의 이미지나 인상형성과 관련된 연구(이명희, 강승희, 1998; 윤영애, 2005; 정수진, 최수경, 2009)가 다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디자인 요소를 다르게 조합한 의복과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조사한 실험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목걸이는 착용자의 능력과 품위 요인을 달리 나타내는 중요한 액세서리로 연구되어 왔고, 귀걸이는 젊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액세서리로 착용빈도가 매우 높은 액세서리(최수경, 2010)이며, 코사지는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에 자주 착용되는 액세서리(김혜경, 2008)이므로 본 연구의 변인으로 선택하여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의 변화가 여성의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 여성을 지각대상으로 검정 드레스의 디자

인 요소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및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추론의 차이를 알아보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검정 드레스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장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검정 드레스 구입 시 자신만의 개성있는 스타일을 선택하고 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지각대상자로 하여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및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추론의 차이를 알아보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 지각의 차원을 밝힌다.
- 2)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실루엣, 스커트 길이, 네크라인, 소매)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다.
- 3)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목걸이, 귀걸이, 코사지)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한다.
- 4)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 5)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한다.
- 6)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의 이미지 특성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대인지각 이론

지각(perception)이란 사물이나 인물 그대로의 실체가 아닌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받아들여진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Lake, 2009). 감각은 감각 기관의 자극으로부터 비롯된 단순한 지각인 반면, 지각은 뇌의 수준에서 감각을 선택하고, 조직화하고, 해석하는 과정이다(Schacter, Gilbert, & Wegner, 2012). 즉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서 기인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 단순한 감각을 정신적인 두뇌 활동을 통하여 의미있는 지각으로 변환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 지각대상이 사람인 경우를 대인지각(person perception)이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을 보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느껴서 형성되는 인상을 뜻한다(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12).

Kaiser(1997)는 타인에 대한 인상은 그 사람의 외모, 행동, 상황 또는 사건의 맥락을 통하여 형성되므로 타인과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 외모는 대인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외모란 전체적으로 조합된 이미지를 말하는 것으로 의복이나 액세서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헤어스타일링, 화장, 문신, 피어싱 등 시각적으로 지각될 수 있는 신체 보정에 관한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의복과 액세서리 등 개인의 외모는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로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얻기 위하여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Quadflieg 등(2011)에 의하면 지각자는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단순히 해석하기 보다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입수된 정보를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켜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

인지각은 지각대상자에 대한 외적 특성뿐만 아니라 내적 특성에 관한 추론을 이끌어 내며, 지각대상자에 대한 추론 역시 대인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각대상자의 외적, 내적 특성에 관한 추론은 지각자의 주관적인 인지 과정을 거치면서 지각대상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대인지각에 관한 연구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복변인과 주로 관련된 대인지각 이론으로서 두드러진 단서, 범주화, 내현성격 이론 등의 사회인지(social cognition) 이론과 인상형성 이론이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두드러진 단서(salient cue)

우리는 주위의 자극을 전달받을 때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노출되는 단서들 중 두드러진 단서를 중심으로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의미한다.(Solomon & Rabolt, 2007). 두드러진 단서는 그 단서가 놓여있는 배경과 주어진 단서를 비교, 판단함으로써 결정된다(강혜원 외, 2012). 즉 눈에 띄거나, 생생한 것(vivid), 부정적인 것(negative) 등이 여러 단서 중에서 특히 눈에 띄게 되는 것이다. 그 예로는 휠체어를 탄 사람, 격렬한 행동, 빨간 스웨터, 흡연금지 장소에서의 흡연 등을 들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단서들에 더 주의를 기울여 이를 중심으로 지각하게 되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쉽게 생각이 나며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상과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Miller(1982)의 의복 실험연구에서 두드러진 의복이나 신체조건은 인상형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더 받았다. 이는 두드러진 단서 자체가 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요소로,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Lennon과 Miller(1984~85)는 하나의 단서는 유사한 차원의 다른 단서와 같이 있을 때는 단서의 특출성이 적어져 각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유사하지 않은 다른 차원의 단서와 같이 있을 때는 그 효과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드러진 단서는 특히 반대 차원의 단서들이 같이 제시된 경우 인지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2) 범주화(categorization)

우리는 문제를 풀고, 추론을 하고, 판단을 하는 데 개념과 범주를 사용한다. 개념(concept)은 사물이나 사건 또는 그 밖의 자극들이 가진 공통된 속성을 묶거나 범주화하는 심적 표상을 의미하고, 범주화(categorization)는 사람이 어떤 자극을 관련있는 자극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서 식별하게 되는 과정이다(Lake, 2009). 이러한 범주화 과정은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 종교, 외모, 성별 등에 의해서 사람을 분류하고, 이러한 분류를 통해 동일한 범주에 속한 사람들은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는 고정관념(stereotype)을 형성하게 된다(박정열, 허태균, 2006). 고정관념은 일단 한번 생기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서, 처리하고, 해석하며, 기억하는 방식에 강한 편견을 갖게 만든다(Quadflieg 외, 2011). 고정관념은 부정확할 수 있고, 남용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또한 고정관념은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Schacter, Gilbert, & Wegner, 2012). 따라서 범주화는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과정이기는 하지만 고정관념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현성용 외, 2013).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범주화 과정을 거쳐 개인의 주

관에 따라 고정관념이 작용하여 첫인상이 형성되며 이러한 고정관념 또한 첫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타인에게 평가될 수 있고, 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와 실제로 타인이 지각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심층적인 이미지 지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3) 내현성격 이론(implicit personality theory)

우리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유머러스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가 사교적이고, 낙천적이며, 부드러운 사람일 거라고 추론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부분적인 단서로 타인에 대한 정보를 추론하는 것은 내현성격 이론으로 설명된다. 내현성격 이론은 성격 특성 간의 관련성에 관한 개인의 믿음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성격까지 판단하는 틀로 사용된다는 이론이다(현성용 외, 2013). 즉 사람들의 성격특성들 간에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상호연관성을 기초로 자신 또는 타인의 행동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지각 대상자가 행동할 당시에는 직접 나타나지 않는 다른 성격특성들까지도 추리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특질 간의 상호관련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정 문화권 내에서는 일관성이 있다. 또한 내현성격 이론에서 추론되는 성격특성들 사이의 관계는 진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즉 어떤 사람은 지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보통 지적이면 비사교적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현성격 이론은 그 효과가 지각 대상자의 인상 전반에 걸쳐 과잉 일반화 되면서 하나의 일관된 면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후광 효과 혹은 일관성 효과의 한 가지 예로도 볼 수 있다(박정열, 허태균, 2006).

이와 같이 내현성격 이론은 성격들 사이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로 이

루어져 왔지만, 인간의 신체적 외모나 의복 스타일 등 비언어적 단서들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4) 인상형성 이론

사람들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를 부단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우리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살피게 되는데 이러한 물음은 사회심리학에서 인상형성이라는 이론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인상형성이란 개인이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일관성있는 인상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지각하고 조직화하여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이다(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12). 인상형성과정을 살펴보면, 사람이 먼저 타인에 관한 소수의 피상적인 인상정보를 알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다수의 미확인 정보를 추론한다. 그 다음 수집한 정보 중에서 최종 인상 판단에 사용할 정보를 선별하고, 마지막으로 이 정보를 통합하여 전반적인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현성용 외, 2013). 인상형성 연구의 핵심은 타인에 의해 제시되는 단편적 외모 단서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서 그에 대해 전반적인 인상으로 통합되는가 하는 문제이며, 이는 대표적으로 형태주의적 접근이론으로 설명된다.

형태주의적 접근 이론은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 의거한 것으로 이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뇌는 몇몇의 기본적인 조직적 원리에 의해 유입되는 감각들과 기존에 있는 기억들을 서로 연관 짓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이 개별적 자극이 아닌 자극의 전체성에서 의미를 추론한다는 것이다(Solomon & Rabolt, 2007). 즉 게슈탈트 심리학은 우리가 흔히 부분의 합보다는 전체로서 지각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심리학적 접근(Schacter, Gilbert, & Wegner, 2012)으로, 낱개의 여러 정보들은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주어지는 맥락(context)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한 정보는 다른 정보와의 관련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한다고 보며, 그런 의미에서 게슈탈트 접근(Gestalt approach) 또는 인지적 접근(cognitive approach)이라고도 한다(강혜원 외, 2012).

형태적 접근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Asch(1946)의 중심특질에 관한 연구가 있다. 피험자들에게 ‘따뜻하다’는 말과 반대말인 ‘차갑다’라는 말을 제시한 후 인상을 평가하게 한 결과, ‘따뜻하다’라고 한 경우는 그 사람을 관대하고 유쾌하며 인간적인 사람으로 평가한 반면, ‘차갑다’라고 한 경우에는 정반대의 인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다른 특성을 반대말로 바꾸어 제시한 경우에는 인상평가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따뜻하다-차갑다’라는 특질이 인상형성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특질(central trait)로 부각되어 이것을 중심으로 지각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형성되고, 그 외의 특질은 주변 역할을 하는 주변특질(peripheral traits)이 되어 중심특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특질들이 가지는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특질이 주어지는 상황 혹은 배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12).

궁극적으로 볼 때 인상형성이란 개인이 타인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닌 합 이상의 게슈탈트로서 지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정보 중에서도 중심특질 위주로 인상이 형성되며 주변특질과 관련성에 따라 최종적인 인상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게슈탈트로서 개인의 전체적인 인상은 신체적 외모나 의복이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러한 각각의 단서는 주어진 맥락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검정 의복의 이미지 지각

색채는 의복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표현 요소이고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인상을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람이 대상을 보고 이미지를 지각할 때 70~80%가 색채에 대한 인식이고, 대상의 선호, 비선호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역시 색채이므로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 시 색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최종석 외, 1997). 색의 상징성 및 색의 연상으로 비롯된 색의 성격은 문화나 개인의 주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어느 정도 일관성을 나타낸다(Davis, 1996). 다른 색상들에 비해 자연스럽게 눈에 띄는 색상인 검정은 여러 시대에 걸쳐 다양한 이미지들을 전달해 왔으며, 현대에 와서는 그 이미지가 더욱 복잡해지고 방대해졌지만 여전히 오래되고 근원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색채이기도 하다(Harvey, 1996).

이와 같이 의복에서 색채가 지니는 의미는 의복이 단순히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의복의 상징성과 감성적 측면을 평가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서 미적, 상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검정 의복에 나타난 상징과 이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검정 의복의 시대적 이미지 변천을 고찰하고, 검정 의복이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검정 의복의 시대적 이미지 변천

고대부터 근대까지 의복에 나타난 검정의 가장 일반적인 이미지는 상복에서 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애도, 비애감, 종교적 측면의 금욕주의와 엄숙함, 절제, 검소함을 나타내며 왕의 위엄성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악과 부도덕함, 성적인 측면의 부정적인 의미를 상징함과 동시에 단아함과 우

아함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였다(김기례, 채금석, 2004).

일반적인 검정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달리 긍정적인 평가로서 고대 그리스의 검정은 생명의 뜻을 지닌 색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어둠에서 새날이 밝아오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정서적 반응의 결과로, 검정은 생명의 근원인 비옥한 땅을 의미하기도 했다(Wilson, 2003).

르네상스 초기에는 검정이 개인의 얼굴 특질을 부각시키는 색상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Hollander, 1993). <그림 1>은 경건하고, 부유하지만 검소한 이상적인 여인상의 외적, 심리적 특질이 세부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는 로히에 반 데어 웨이덴(Rogier van der Weyden, 1399-1464)의 작품이다(Stokstad, 1999). 초상화 속의 여인은 붉은 허리띠를 한 하이웨이스트의 검정 의복을 입고 있으며, 저명도의 검정 의복과 어두운 배경색이 고명도의 밝고 투명한 얼굴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역사적으로 한 국가의 국제적 영향력이 큰 시기에 그 나라의 패션이 주변 국가에서 수용되어 유행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5세기의 부르고뉴(Bourgogne) 궁정, 16세기 초기의 독일, 16세기의 스페인, 17세기의 네덜란드, 19세기의 영국패션에 나타난 검정 의복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5세기 의 필립 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가 좋아하던 검정으로 세련되게 입음으로써 외관상 상(喪) 중임을 의도적이면서 효과적으로 나타내었다(Mendes, 1999). 그 당시 부르고뉴의 검정 의상은 가장 화려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럽 전역에 유행하였으며, 그 이후 검정은 주목할 만한 의복 색채가 되었다.

16세기에 스페인 왕족은 카톨릭에 대한 깊은 신앙심으로 검정 의상을 습관적으로 착용하였으며, 검정은 스페인 왕실 의상의 특징으로서 근엄함을 상징하게 되었다. 스페인이 유럽의 정치 강대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스페인의 검정 패션이 전 유럽 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김영인 외, 2009). 이후 어두운 검정 의상만으로는 화려함을 표현하기 어려웠으므로 장



<그림 1> Rogier van der Weyden.
Portrait of a Lady, c. 1460.
 National Gallery of Art, Washington, D.C.
 (출처: Stokstad, 1999, p.631.)



<그림 2> Sofonisba Anguissola.
Infanta Isabella Clara Eugenia, 1599.
 Museo del Prado, Madrid.
 (출처: Riello & McNeil, 2010, p.170.)



<그림 3> Jacob Jordaens. *Portrait of Catharina Behaghel*, 1635. Rijksmuseum, Amsterdam.
 (출처: Rijksmuseum 자료검색일: 2013. 5. 30.)



<그림 4> Mourning dress of Queen Victoria, 1894.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출처: Reeder, 2010, p.204.)

대한 금과 보석 장식이 신분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귀족적인 화려함을 나타내었다(Riello & McNeil, 2010). <그림 2>는 하이 네크라인의 검정 드레스에 레이스로 된 러프(ruff)를 하고 금, 진주, 보석 등 화려한 장신구를 무거워 보일 정도로 착용하고 있는 16세기 Isabella 여왕의 초상화이다. 이 시대의 검정 드레스는 웅장한 장신구와 함께 근엄하면서도 화려한 귀족성을 표현하고 있다.

17세기에 이전까지는 상복에 관하여 특별히 정해진 법률이 없었으나, 17세기에 이르러 검정 의상이 왕실 장례식에서 공식적으로 착용되기 시작하면서 엄격한 의식을 의미하기도 하였다(Condra, 2008).

17세기 네덜란드의 검정 의복은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한 부르조아층의 영향으로 검정만으로 제한되었고 단순한 형태의 간소함을 상징하였다(곽혜선, 금기숙, 1998). <그림 3>은 검정 드레스를 입은 17세기 네덜란드 귀부인의 초상화이다. 검정 드레스는 흰색 러프와 커프스(cuffs) 장식이 있으며 장신구도 최소한으로 착용하고 있어 이전보다 한층 간소해진 청교도적 검소함과 단순성을 나타내고 있다.

19세기에는 영국의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인 보들레르의 댄디즘의 영향으로 남성들의 의상이 간소해지고 주로 검정과 같은 어두운 색상의 의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시대의 여성들의 의상은 밝고 주로 흰색이어서 흰색이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에 반하여 검정은 남성성을 나타내는 색상으로 여겨졌다(Harvey, 1996).

19세기 상복에는 엄격한 규범이 있었는데, 친족은 몇 달 동안, 심지어는 몇 년 동안 검정 의복을 입었고, 먼 친척의 경우는 검정 트리밍(trimming)을 한 의복을 입었다. 빅토리아 여왕은 1861년 남편 알버트(Albert) 공이 죽은 후 33년 동안 상복(그림 4)을 입었으며(O'Hara, 1984), 이후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 검정 의상만 입고 지내는 풍습이 생겼다(김영인 외, 2009).

20세기는 검정 의복의 이미지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시기이다. 이전에는 상복을 입고 공공장소에 다니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여성들이 검정 의복을 입고 다니는 것은 평범한 일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상복이나 수도승의 수도복, 과부의 의복 색이로만 여겨졌던 검정을 현대적 감각의 의복 색채로 만든 것은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였다(그림 5).

샤넬이 사랑하던 애인이 바다에서 실종되자 전 국민이 그를 애도하도록 검정 드레스를 만들어냈다는 설도 있다(Schnurnberger, 1991). 그러나 그녀의 검정 드레스는 애도의 이미지보다는 당시 남성 의복에 주로 사용되어 권위와 힘을 상징하던 검정을 여성복에 도입함으로써 평등과 자유를 추구한 것이었고, 가장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산업 디자인 색채로 떠오른 검정을 여성의 드레스에 적용함으로써 세련된 현대성을 상징한 것이었다.

샤넬은 검정이 우아하고 유혹적인 의복 색채임을 리틀 블랙 드레스로 입증하였는데, 검정 크레이프나 울처럼 광택이 없는 소재는 일상복이 되었으며, 실크 새틴과 벨벳은 이브닝 웨어 용도로 인기가 있었다(배수정 외, 2008).

리틀 블랙 드레스는 당시 폴 뿌아레와 같은 디자이너들의 매우 장식적인 의상과 대조적인 단순하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주목받은 드레스이다. 그러나 샤넬의 진짜 성공의 비밀은 실용성과 편안함이 아닌 상류층의 룩을 젊고 캐주얼하게 만들었다는 데에 있었다(Steele, 1998). 또한 샤넬은 1920년대 울 저지의 샤넬수트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도 검정색이 자주 사용되었다. <그림 6>은 검정 재킷에 흑백의 색으로 구성된 카네이션 코사지와 진주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다.

1920년대 검정 의복은 샤넬의 리틀 블랙드레스를 선두로 하여 변화된 라이프스타일 속에서 단순성과 여성성, 현대성을 상징하는 특성을 나타내었고, 1930년대에는 보수적 성향과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은 관능적, 환상적, 여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김선영, 2007).



<그림 5> Chanel, *Little black dress*. 1926.
(출처: The Kyoto Costume Institute, 2002, p.400.)



<그림 6> Chanel, *Day ensemble*. 1927.
(출처: The Kyoto Costume Institute, 2002, p.403.)



<그림 7> Elsa Schiaparelli, *Evening dress*. 1938.
(출처: Mendes, 1999, p.40)



<그림 8> Christian Dior, *New Look*. 1947.
(출처: Ludot, 2001, p.21.)

<그림 7>은 초현실주의 디자이너 엘자 스키피아렐리(Elsa Schiaparelli, 1937~1973)의 검정 이브닝드레스로, 온 몸을 감싸는 우아한 라인과 대조적으로 인체의 골격을 패딩을 이용하여 과장되게 묘사함으로써 그녀의 초현실주의적 영감을 자유롭고 과감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1947년 디오르는 미디 길이의 풀(full) 스커트, 자연스러운 어깨선, 가느다란 허리와 풍성한 힙 라인이 특징(Hill, 2011)인 뉴룩(new look)스타일을 발표하여 곡선적인 여성성을 표현하였다.

<그림 8>은 검정색의 뉴룩 드레스로, 51인치 폭의 크레이프 천이 29 야드 이상 사용되어 만들어졌다고 한다(Ludot, 2001). 당시 전쟁 직후의 어두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비실용적이고 허식으로 보였던 뉴룩 스타일은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여성성을 갈망하던 여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으며 그 인기는 꾸준히 이어졌다.

1950년대 비트닉(beatnik)은 미국 대학생과 지식인, 예술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정치의 무의미성, 진부한 대중문화의 현실을 경멸하면서 의상에서는 화려함을 철저히 배제하였다(김영인 외, 2009). 비트닉 패션의 대표적인 스타일은 윤기있는 짙은 헤어 색, 검정 폴로 넥 스웨터, 검정 레오타드 또는 세련된 검정 드레스이며, 특히 샹송가수 그레코(Gréco, 1927~)의 짙은 눈화장은 샌프란시스코에 주변의 비트 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스타일이었다(Cumming, Cunningham, & Cunningham, 2010).

1950년대에는 흑백 영화를 포함한 대중매체의 확산으로 검정 의상을 입은 여주인공들이 새로운 블랙 드레스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에서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 1929~1993)은 보트 네크라인에 슬리브리스로 구성된 블랙 드레스(그림 9)를 입고 진주로 장식된 코스튬 주얼리를 착용하여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1960년대 최대의 패션 이슈는 미니스커트였다. 1961년에는 스커트 단이



<그림 9> Audrey Hepburn,
Breakfast at Tiffany's. 1961.
(출처: Demeester, 2012, p.121)



<그림 10> Courrèges,
Black dress. 1965.
(출처: Luddot, 1999, p.81.)



<그림 11> Azzedine Alaïa,
Wool jersey dress. 1981-1982.
(출처: Luddot, 1999, p.52.)

무릎 위로 올라갔고, 1966년에는 허벅지까지 올라가기에 이르렀다(Laver, 2002). ‘미니’를 도입한 것으로 유명한 메리 퀴트(Mary Quant, 1934~)의 미니드레스는 심플한 A라인과 절제된 디자인으로 극도의 단순성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검정색 미니드레스(그림 10)는 단순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 나타난 핑크(punk)는 검정 의복으로 사회에 대한 반항을 표현하였는데, 핑크 룩(look)은 파괴적이고 기괴함을 나타내며 핑크나 초록색으로 염색한 헤어스타일, 검정 눈, 검정 입술 화장 등으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었다(김영인 외, 2009). 이러한 핑크 룩은 하이패션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옷에 영향을 주면서 1990년대까지 패션쇼 무대에 지속적으로 등장했다(Laver, 2002).

1980년대에 들어서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다양한 스타일의 혼재와 반항적이고 아방가르드한 이미지로 표현되었다(김선영, 2007). <그림 11>은 아제딘 알라이아(Azzedine Alaïa, 1939~)의 전위적인 디자인의 울 저지 드레스로, 그의 전형적인 스타일인 단순성, 명료한 끝처리, 몸매가 드러나는 관능미를 표현한다.

1990년대에 유행했던 페티쉬(fetish) 패션은 몸에 꼭 끼는 드레스에 비즈, 모조 보석, 체인 등으로 장식되거나 컷 어웨이(cut-away) 기법으로 신체를 필요이상으로 노출한 스타일(Tolkien, 2000)로, 페티쉬 스타일의 검정은 새로운 관능성을 상징하였다.

2000년대 이후의 리틀 블랙 드레스는 신진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재조합되거나 재해석되어 극단적인 미니멀리즘, 초현실주의, 클래식하고 개성적인 표현 등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해 오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의복에 나타난 검정은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상복에서 나타난 비애, 슬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었고, 남성복에서 볼 수 있듯이 권위와 힘을 상징하거나 종교적인 절제, 검소, 금욕 등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샤넬의 리틀 블랙 드레스 이후에는 여성의 검정 의복이 남성복과 같은 권위와 힘의 상징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실용성과 기능성을 추구

한 현대성, 우아함, 관능성, 로맨틱, 모던함, 단순성 등 새로운 미적 가치를 드러낸 의복색채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검정 의복의 이미지

검정은 일반적인 느낌으로 어두운 공간을, 심적인 현상으로 중립, 밤, 공허를, 직접적 연상으로 애도, 불길함, 죽음, 억압을, 객관적 인상으로 장례식을, 주관적 인상으로 부정적 마음, 죽음을 연상시키는데, 이러한 색의 연상은 경험과 인상에 의해 발생하는 작용이다(Birren, 2012). 따라서 색채가 나타내는 분위기는 같은 색채라도 상황이나 보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그 특질이 다양하게 지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검정 의복 이미지에 관한 연구에는 복식사적 고찰을 통한 검정 의복의 상징과 이미지를 분류한 연구, 현대 패션에 나타난 검정 드레스의 이미지 연구, 검정이나 무채색 의복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 등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곽혜선, 금기숙(1998)은 르네상스 이전부터 1980년대의 흑색의상을 고찰한 결과, 흑색의 상징을 크게 죽음, 억압된 자의 표출, 현대성으로 요약한다. 의상에 나타난 흑색의 상징성은 죽음, 엄격함, 간소함, 현대성, 저항, 성(性)의 6가지로 나타났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징성이 각각 구분되어 사용되기 보다는 서로 융합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문혜정, 김민자(1998)의 연구에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 서양 복식에 나타난 검정색 이미지는 비애성과 금욕성의 2가지 부정적인 이미지와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의 3가지 긍정적인 이미지로 분류되었다.

김기례, 채금석(2004)은 1920년부터 1990년대까지 현대 패션에 나타난 검정 드레스에 표현된 이미지를 고찰하여, 관능성, 단순성, 여성성, 현대성, 금욕성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관능성은 여성의 성적매력을 부각시킨

밀착형, 노출형, 단순성은 단순형, 여성성은 우아한 여성의 곡선미를 살린 단순형과 노출형, 현대성은 기능적인 면을 강조한 단순형, 밀착형, 노출형, 금속성은 여성의 신체를 은폐시키는 무장식의 형태와 인체의 곡선을 부정한 박스형 실루엣의 단순형 검정 드레스에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윤지윤, 김영인(2005)의 1990년대 이후 무채색 의복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검정색이 엄숙하고 진중한 이미지, 고급스럽고 모던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고독, 슬픔, 반항적인 이미지와 강한 이미지, 현대적인 이미지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정미, 조진숙(2006)은 검정 의복에 대한 이미지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검정 의복의 이미지 평가 용어의 빈도수는 비애성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여성성(22.1%), 위엄성(17.8%), 모던성(14.1%), 금속성(7.6%), 관능성(5.6%) 순으로 나타났다.

김선영(2007)은 2000년 이후의 현대패션에 나타난 리틀 블랙 드레스의 미적특성을 현대성, 관능성, 여성성, 혼성성으로 분류하였다. 현대성은 간결한 조형적 라인, 세부장식의 최소화, 액세서리를 배제한 모던한 스타일로, 관능성은 광택 소재나 비치는 소재, 신체 노출, 신체의 곡선을 드러낸 스타일로, 여성성은 세련된 여성스러움, 소녀 감성의 로맨틱한 이미지로, 혼성성은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미적가치를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김여원, 최종명(2010)은 검정 의복 소재의 색채감성을 요인분석한 결과, 검정 소재는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의 4개의 색채감성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색채감성 요인은 소재의 종류와 남녀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벨벳소재가 이들 색채감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소재로 평가되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검정 소재가 더 단순하고 우아하며 현대적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분류한 검정 의복의 이미지를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다. 패션에 나타난 검정 의복의 이미지는 크게 부정적인 이미

지와 긍정적인 이미지로 분류할 수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는 죽음, 슬픔, 반항, 고독, 비애성, 금욕성 등으로 나타났고, 긍정적인 이미지는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 단순성, 여성성, 현대성 등으로 나타났다. 즉 검정 의복은 고대로부터 상복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으나 샤넬이 리틀 블랙 드레스를 발표한 1920년대를 기점으로 우아성, 관능성 등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복으로 검정 의복을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추세이므로 죽음, 슬픔, 비애성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여전히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 1> 검정 의복 이미지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연구 대상	검정 의복의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	긍정적 이미지
곽혜선, 금기숙(1998)	르네상스 이전 ~1980년대의 흑색의상	죽음, 저항, 성	엄격함, 간소함, 현대성
문혜정, 김민자(1998)	르네상스 시대 ~19세기 말 서양복식	비애성, 금욕성	위엄성, 우아성, 관능성
김기례, 채금석(2004)	1920년대~1990년대 블랙 드레스	금욕성	관능성, 단순성, 여성성, 현대성
윤지윤, 김영인(2005)	1990년대 이후 무채색 의복	고독, 슬픔, 반항	엄숙, 진중, 고급스러움, 모던한, 현대적
이정미, 조진숙(2006)	설문지를 통한 평가용어 분석	비애성, 금욕성	여성성, 위엄성, 모던성, 관능성
김선영(2007)	2000년 이후 현대패션에 나타난 리틀 블랙 드레스	현대성, 관능성, 여성성, 혼성성	
김여원, 최종명(2010)	검정 의복 소재	심플/클래식, 우아함, 현대적, 위엄성	

검정색이나 무채색 의복이 타인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amhorst와 Reed(1986)는 의복의 명도가 관리직 여성의 능력 평가에 영향을 주어 어두운 재킷이 밝은 색 재킷보다 더 능력 있고 유능하게 평가된다고 하였다. Francis와 Evans(1987)의 연구에서도 여성 관리직 직원의 능력에는 짙은 색 의복이 긍정적인 인상을 나타내고 선명한 색보다 저채도 의복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 Vrij(1997)의 연구에서는 검정색 의복 용의자가 밝은 색 의복 용의자보다 더 공격적이고 유죄일 것 같은 인상을 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검정 의복이 경쟁, 충돌, 물리적 공격과 같은 요소를 갖춘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인상을 불러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는 Frank와 Gilovick(1988)의 연구결과를 지지한 것으로 같은 검정 의복도 착용자의 상황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Winakor와 Navarro(1987)는 연회색, 회색, 진회색의 3가지 무채색의 배색에 따른 의복 스타일(dress, suit/skirt, jacket/pants)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무채색의 명도와 배색은 의복 스타일에 따라 비체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 스타일은 의복의 명도나 배색보다 의복 착용자 선호도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Radeloff(1991)의 연구에서는 중명도, 저명도, 고명도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 의류소재의 명도가 의복 색채 선호도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현, 강혜원(1995)의 선행연구에서 검정 드레스 착용자는 사무적이고 격식을 차리며, 나이 든 인상,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인상으로 지각된다고 하였다.

김윤경, 강경자(2003)의 연구에서는 의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유채색보다 무채색 의복이 매력적으로 지각되어 스타일보다 의복 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채색은 여러 가지 톤 조합에서 고상하고 품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2000)의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의복 색에서 채도가 낮은 색조를 선호하였으며 특히 정장의 경우 무채색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채색의 선호도는 회색, 검정, 흰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명희, 강승희(1998)의 장신구와 재킷 색에 따른 여성의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에서 장신구보다는 재킷 색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빨강 재킷 착용자는 무채색(흰색, 회색, 검정)의 재킷 착용자에 비하여 능력 있고 호의적이며 젊게 지각되었다. 또한 빨강 재킷과 흰색 재킷을 착용한 경우는 비교적 여성적으로 지각되었고 회색과 검정 재킷을 착용한 경우는 남성적으로 지각되었다.

김효숙, 최창석, 이은실(2003)은 겨울 시즌에 여성들이 많이 착용하는 (검정, 청색, 밤색, 베이지, 회색) 의복색의 이미지 지각을 조사한 결과, 검정색 상하의는 어깨가 좁고 키가 크며 가장 날씬하게 보였고, 밤색 상의/검정색 하의 차림은 어깨가 넓고 키가 작아 보이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혜숙, 김재숙(1996)의 연구에서 검정은 투피스에 잘 어울리는 색으로 평가되었고 심미적 이미지(세련되다)와 심리적 이미지(차분하다)가 높게 평가되었다.

조필교, 정혜민(1998)의 무채색에 대한 연구에서 흰색, 회색, 검정은 모두 수수하고 차가우며 진정되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흰색은 가볍게 느끼는 반면 검정은 가장 무겁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검정은 강한 느낌을 주며 세련된 이미지와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윤, 김영인(2000)은 무채색의 색채이미지 측면에서 각각의 색으로 전달되는 이미지를 고찰한 결과, 검정은 엄격함, 모던한, 악마적/불길한, 죽음의, 고독한/반항적 이미지로 나타났다.

류숙희, 최재란, 박종희(2000)는 4가지 무채색(검은색, 진회색, 연회색, 흰색)으로 된 5가지 의복형태(H라인, A라인, V라인, X라인, O라인)를 사용하

여 색채에 따른 의복의 이미지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복의 색채는 성숙성, 경연성, 매력성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H라인 의복의 경우 검정과 진회색은 딱딱하고 차갑고 매력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V라인 의복에서는 검정이 성숙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또한 X라인 의복에서는 검정과 흰색이 진회색, 연회색보다 매력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조진숙(2007)은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검정 의복의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검정 의복의 이미지에 대해 여성성, 위엄성, 모던성을 더 높게 지각했으나 금욕성은 남성보다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많을수록 검정 의복의 이미지에 대해 금욕성, 관능성, 비애성이 더 높게 지각된 반면, 위엄성은 나이가 가장 어린 집단에서 가장 높게 지각되었다. 미혼이 기혼보다 모던성을 더 높게 지각했으며, 기혼은 미혼보다 금욕성과 관능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위엄성, 모던성, 금욕성이 더 높게 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경우 위엄성과 모던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검정 의복은 능력, 현시성, 모던성, 위엄성, 세련된, 차별한 등의 이미지로 나타났고, 검정과 같은 저명도, 저채도의 의복은 관리직 직원의 능력에는 긍정적인 인상을 나타내지만 운동선수나 범죄자와 같은 물리적 공격 요소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인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같은 검정 의복이라도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고, 다른 디자인 요소나 연령 등의 변인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3.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의복의 이미지 지각

의복디자인 요소는 실루엣, 디테일, 색, 재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여기서 디테일은 네크라인과 칼라, 소매 형태, 스커트 길이나 넓이 등과 같이 실루엣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말한다(Jernigan & Easterling, 1997). Horn과 Gurel(1981)은 의복디자인 요소를 선, 형, 공간, 재질, 색상의 5개로 정의내리고, 이 요소들의 특성이 다양한 것은 전체 디자인의 전반적인 효과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Davis(1996)는 의복디자인 요소를 선, 공간, 형태, 빛, 색상, 재질, 무늬로 보고, 이 요소들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다른 어떤 요소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복디자인의 기본요소에는 선, 형태, 실루엣, 색채, 소재, 디테일 등이 있으며, 소재에 재질과 무늬를 포함시키거나 디테일에 무늬나 장식 또는 실루엣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기도 한다.

의복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의복 디자인 요소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네크라인, 소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루엣과 이미지 지각

의복의 실루엣은 착용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의복형태의 외곽선으로 디자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루엣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유행에 따라 새로운 실루엣이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 체계화된 분류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오늘날에는 주로 라인(line)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다. 라인의 개념은 1945년부터 1957년 사이의 디오르의 컬렉션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1960년대 피에르 가르탱(Pierre Cardin, 1922~)과 꾸레쥬(Courrèges, 1923~)의 트라페즈(trapeze) 라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미

국, 일본, 프랑스에서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트렌드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장 일반적인 라인은 A-line, H-line, I-line, X-line, Y-line, trapeze line, inverted trapeze line, box line, ball line, oval line 등 단순한 도형이나 알파벳을 인용하기도 한다(Gerval, 2008).

실루엣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덕희, 이경희(1994)는 4종류의 실루엣(H, A, V, X-line)과 디테일에 의한 표면이미지의 시각적 이미지 차이를 연구한 결과, 이미지 차원은 매력성, 귀여움, 장식성, 현대성, 젊음의 5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H-line과 V-line은 매력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로 나타났고, A-line과 X-line에서는 의복의 디테일에 의한 표면효과와 상관없이 귀여운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2000)는 검정, 진회색, 연회색, 흰색의 4가지 무채색 의복의 형태별(H-line, A-line, V-line, X-line, O-line) 이미지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검정 의복은 성숙성, 경연성, 매력성, 현시성, 활동성의 모든 요인에서 형태별 이미지 차이를 보여 V-line이 가장 성숙하고 비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냈고, X-line은 가장 어려보이고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김일분, 유태순(1999)의 연구에서 3가지 의복이미지(유행성, 품위성, 활동성)와 실루엣(A, H, Y, X-실루엣) 요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유행성의 경우에는 X, A, H-실루엣이 높게, Y-실루엣은 낮게 나타났고, 품위성의 경우 X, Y, A-실루엣은 높게, H-실루엣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활동성의 경우 H, Y-실루엣이 높게 나타났다.

이미연(1999)은 실루엣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결과, 실루엣은 매력성, 여성적, 귀여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단정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즉 돛형 실루엣과 벨형 실루엣은 같은 범주로 지각되어 매력적이고 여성적이면서도 귀엽게 지각된 반

면, 튜블러형 실루엣은 가장 매력적이지 못하고 여성적이지 않으면서 귀엽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경림, 박숙현(2006)은 모던 이미지의 차원을 섹시모던, 엘리트모던, 내추럴모던, 매니쉬모던, 미니멀모던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조형요소 중 실루엣을 A라인, H라인, fitted라인의 3가지로 구분하여 모던이미지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섹시모던을 제외한 4개의 모던 이미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엘리트모던은 fitted라인이, 내추럴모던은 A라인이, 매니쉬모던과 미니멀모던은 H라인이 가장 지배적인 실루엣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순, 김정미(2008)는 미니스커트의 실루엣과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미니스커트의 실루엣이 H-line 보다는 A-line 일 때 허벅지나 다리가 가늘어 보이고 하체가 날씬해 보이며 하반신 길이는 길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A-line 실루엣은 골반이 납작해 보이고 엉덩이가 작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각적 이미지에 있어서는 A-line 스커트가 H-line 스커트보다 개성 요인, 매력성 요인, 활동성 요인에서 높게 나타나, A-line 스커트가 H-line 스커트보다 개성있고 매력적이며 캐주얼하고 경쾌하며 발랄한 이미지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실루엣의 이미지 차원은 매력성, 실용성, 품위성, 성숙성, 활동성, 여성성, 현대성, 젊음, 귀여움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실루엣에 따른 이미지 차원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H라인은 매력성, 개성, 현대성, 단순성, 활동성이, A라인은 개성, 매력성, 활동성, 품위, 귀염성이, V라인은 매력성, 현대성, 성숙성, 비활동성이, X라인은 여성성, 귀염성, 품위, 활동성이, Y라인은 품위와 활동성이 높게 평가 되었다. 이와 같은 실루엣의 이미지 차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비교하는 실루엣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으며, 같은 실루엣이라도 다른 디자인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미지 지각에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2) 스커트 길이와 이미지 지각

스커트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디자이너가 패션 룩(look)이나 디자인 방향을 바꾸고자 할 때 중점이 되는 디자인 요소이다.

스커트는 4가지 기본형인 스트레이트(straight), A라인, 페그(peg), 벨(bell) 스커트로 분류된다. 또한 스커트 길이에 따라 가장 짧은 마이크로 미니(micro mini)부터 미니(mini), 무릎길이(knee-length), 미디(midi), 발레리나(ballerina), 발목길이(ankle length) 그리고 가장 긴 바닥길이(floor length)로 분류될 수 있다(Armstrong, 2000).

스커트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Gibbins와 Coney(1981)는 의복 요소 가운데 스커트 길이, 스커트 폭, 티셔츠 형태를 요인 설계로 조작한 16가지 의복의 선 그림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착용자에 대한 인상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의복 요소들에 의해서 성격 특성이 추론되었는데, 스커트 길이는 짧은, 외향적인, 세련된 인상 평가에, 스커트 폭은 세련된, 상냥한, 거만한 인상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커트 길이에 있어서는 허벅지 길이를 짧고 외형적으로, 가장 긴 길이는 세련된 것으로 지각되었고, 스커트 폭에 있어서는 일자형이 세련되고 덜 상냥하게 지각되었다.

이주현, 강혜원(1995)의 드레스 길이(긴 길이, 짧은 길이)에 따른 인상 연구에서 짧은 드레스 착용자는 긴 드레스 착용자에 비해 능력 있고 활동적이며 깔끔한 인상, 덜 사무적이며 어려보이는 인상, 덜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지 않는 인상, 눈에 띄고 화려한 인상으로 지각되었다.

이주현, 조궁호(1995)의 연구에서 짧은 스커트의 수트 착용자는 긴 스커트의 수트 착용자보다 능력 있고 활동적이며(능력-활동성 차원), 덜 사무적이고 어려보이며(품위 차원), 화려하고 눈에 띄며(주의집중성 차원), 밝고 깔끔

한 이미지(깔끔함 차원)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스커트 길이는 의복색채나 칼라유형에 비해 수트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나타났다.

이은령, 이경희(1996)의 연구에서 스커트 폭과 길이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커트 폭에 있어서는 현시성 요인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스커트 폭이 넓어질수록 과장되고 풍성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스커트 길이에서는 성숙성과 활동성 요인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스커트 길이가 길수록 노숙하고 비활동적이고 성숙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매력적이고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희, 강경자(1997)의 연구에서 스커트 폭은 성숙성, 주의집중성, 품위, 부드러움 요인에, 스커트 길이는 성숙성, 현대성, 품위, 부드러움 요인에 독립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커트 폭이 넓은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는 스커트 길이와 상관없이 매력은 없으나, 성숙해 보이고, 품위 있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지각되었고, 스커트 길이가 긴 경우는 스커트 폭에 상관없이 성숙하고, 세련되며, 품위 있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폭과 길이에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스커트의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는 어려보이고 귀여워 보이나, 품위 없고 경박하고, 지적이지 않은 인상으로 평가되었고, 스커트 폭이 넓고 길이가 긴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는 멋있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성숙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며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수경, 강경자(2004)의 연구에서 무채색 톤과 스커트 폭/길이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의 인상차원은 능력/활동성, 품위성, 매력성, 주의집중성, 온유성의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스커트 길이는 짧을수록 능력/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품위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스커트 길이가 길고 폭에 넓으며 어두운 회색일 때 원피스 드레스 착용

자는 나이 들어 보이고, 매력 없고, 촌스러운 것으로 지각되었다.

이정순, 김정미(2008)는 미니스커트의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와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개성과 활동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나치게 짧은 미니스커트보다는 32.5cm와 35cm의 미니스커트가 매력적이고 부담스럽지 않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정순, 한경희(2010)는 플레어 스커트의 스커트 폭 4종류(90°, 135°, 180°, 225°, 270°)와 스커트 길이 3종류(48cm, 58cm, 68cm)가 조합되어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25° 폭으로 된 스커트가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48cm 길이(무릎 위 10cm 정도)의 스커트가 시각적 이미지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 된 반면, 스커트 길이가 길수록 매력적이지 않게 평가되었다.

김경희, 이정순(2009)은 플레어 스커트의 플레어 양(90°, 180°, 270°, 360°)과 스커트 길이(48cm, 58cm, 68cm)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180° 플레어 스커트가 가장 어려 보이고 발랄하며 매력적인 것으로, 스커트 길이는 짧을수록 어려 보이고 발랄하며 매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커트 길이가 긴 플레어 스커트는 나이 들어 보이고 짐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무난하고 평범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에서 48cm 길이에 180° 플레어 스커트는 가장 어려 보이고 발랄한 이미지, 68cm 길이에 90° 플레어 스커트는 가장 나이 들어 보이고 짐작은 이미지로 나타났다.

권민정, 어미경, 서미아(2012)는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 높이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허리 위 3cm, 7cm, 11cm의 모든 허리선 높이의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에서 무릎 위 20cm, 무릎 위 10cm, 무릎길이 순으로 매력성 요인과 길이 보정성 요인의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다. 즉 허리선 높이와는 상관없이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매력적으로 느끼고, 키가 커 보이고 다리가 길어 보이며 날씬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리선 높이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의 상

호작용 효과는 허리선 높이 7cm에서 매력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스커트 길이는 짧을수록 매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스커트 길이는 현시성, 매력성, 단정성, 개성, 여성적, 귀여움성, 활동성 차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보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3) 네크라인과 이미지 지각

네크라인은 우리 얼굴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서 얼굴과 몸의 중계역할을 하는 곳이며, 목은 사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있으면서 착의의 기점이 되기 때문에 의복구조상 매우 중요한 부위라고 할 수 있다(유성우, 김경식, 간호섭, 2012). 네크라인은 목의 길이나 두께뿐만 아니라 얼굴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전체적인 이미지를 좌우한다(Davis, 1996). 즉 얼굴형과 네크라인 형태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시각적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므로 얼굴형에 조화되는 네크라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크라인의 기본형은 라운드 네크라인(round neckline), 브이 네크라인(V-neckline), 스퀘어 네크라인(square neckline)이며, 폭과 깊이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네크라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라운드 네크라인은 주로 부드러운 이미지, 브이 네크라인은 날카롭고 개성있는 이미지, 스퀘어 네크라인은 딱딱하고 남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데 효과적이다(이경희, 이은령, 2011).

네크라인 형태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ate(1991)는 네크라인에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선의 방향이나 형태에 의해 만들어지는 효과에 따라 분류된다고 하였다. 얼굴이 넓거나 목이 짧은 사람은 브이 네크라인, U 네크라인, 할터 네크라인(halter

neckline)과 같은 수직적인 라인이 강한 유형의 네크라인이 어울린다고 하였고, 뾰족한 턱이나 좁은 얼굴의 특징을 지닌 얼굴형에는 보우트 네크라인(boat neckline), 하이 네크라인(high neckline), 스퀘어 네크라인, 주얼 네크라인(jewel neckline)과 같이 수평적인 라인이 강조된 네크라인을 제안하였다. 또한 곡선이 강한 네크라인은 각진 얼굴형에 부드러움을 더하는 반면 직선적인 예리한 각의 네크라인은 둥근 원형의 얼굴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문남원, 김옥진(1997)은 얼굴유형과 의복 네크라인과의 조화 연구에서 장방형과 둥근형, 마름모형의 얼굴형에서는 브이 네크라인이 다른 네크라인에 비해 심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계란형과 역삼각형의 얼굴은 라운드 네크라인, 브이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과의 조합에서 더 심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1997)는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단순한 라운드 네크라인보다 라운드 네크라인 밑에 V자 파임이 있는 복잡한 네크라인에서 얼굴이 더 커 보였고 특히 라운드 네크라인 밑에 V자 파임이 양쪽으로 2개인 네크라인에서 얼굴이 가장 커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V자 파임의 포인트가 지각자의 시선을 가로로 분산시킨 결과로 얼굴이 넓어 보이는 가로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미연(1999)의 웨딩드레스 연구에서 스윗-하트 네크라인이 가장 매력적이며 성숙하게 지각되었고, 오프-숄더 네크라인이 가장 귀엽지 않게 지각되었으며, 라운드 네크라인은 가장 매력없는 것으로 지각되었다. 실루엣과 네크라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는 귀여움성 요인에서 나타나 돛형 실루엣에서는 하트-세이프 네크라인이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고, 벨형 실루엣에서는 스윗-하트 네크라인이 가장 성숙하게, 오프-숄더 네크라인은 가장 귀엽게 지각되었다.

정수진, 최수경(2009)의 연구에서 이미지 지각의 차원은 주의집중성, 매력성, 품위성, 귀엽성의 4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로우 네크라인은 라운드 네크라인보다 주의집중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어 개성적이고, 섹시하며, 화려하고, 세련되며, 매력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귀걸이와 네크라인 유형에 따른 상호작용에서 중간 크기의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 라운드 네크라인보다 로우 네크라인이 주의집중성, 매력성, 품위성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기(2010)의 연구에서 웨딩 드레스 네크라인의 선호도는 홀터, 베어드-탑(bared-top) 곡선, 베어드-탑 수평선 오프-숄더(off-shoulder) 순으로 나타났다. 홀터 네크라인이 베어드-탑이나 오프숄더 네크라인보다 개성과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상호작용 효과는 베어드-탑 수평선의 드레스에 미디엄 업 헤어스타일을 한 경우는 가장 품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 반면 베어드-탑 수평선의 드레스에 롱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한 경우는 품위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네크라인은 주의집중성, 매력성, 품위성, 개성, 여성적, 귀여움성 차원의 이미지로 분류되었으며, 얼굴형,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 등과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매와 이미지 지각

소매는 주로 소매를 따로 재단하여 길의 진동둘레에 붙이는 셋인 슬리브(set-in-sleeve)형과 길의 부분이나 전체가 소매와 한 조각으로 재단되는 슬리브 바디스(sleeve-bodice)형의 두 가지로 분류된다(Armstrong, 2000). 또한 소매는 길이의 변화에 따라 슬리브리스, 캡 슬리브, 쇼트 슬리브, 반소매, 7부 소매, 8부 소매, 긴소매 등으로, 재단의 특징에 따라 한 장 소매, 두 장

소매, 바이어스 소매로 분류되며, 또한 장식의 특징이나 변형상태에 따라 티어드, 드레이프드, 슬래시드, 메미루크 슬리브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소매의 규모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소매가 의복 전체를 지배할 정도로 큰 것도 있다. 이와 같이 소매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데, 그 형태에 따라서 착용자를 부드럽게 혹은 권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김영자, 1998).

소매가 의복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정, 이경희(1996)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의복의 칼라와 슬리브 조합에 의한 의복이미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특히 경연성 요인에서 시각적 이미지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플랫폼칼라에 래글런 슬리브, 러플 칼라에 래글런 슬리브, 보우칼라에 셋인 슬리브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며, 테일러드 칼라에 셋인 슬리브, 스탠드 칼라에 셔츠 슬리브는 딱딱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이용휘, 강경자(1997)의 연구에서 소매 확대 부위에 따른 착용자의 이미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기본소매나 하부에서 확대된 소매형의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는 멋없고 촌스럽고 천박하며 주의집중성이 낮으며, 딱딱하고, 꼭 끼는 인상을 주는 반면 상부 또는 전체 확대 소매는 세련되고 멋있는 이미지, 매력 있고, 유행에 앞서고 섹시하고 눈에 띄며, 부드럽고 풍성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미우, 조정미(1997)의 수녀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복착용자의 인상 요인은 순수성 요인, 경직성 요인, 능력 요인, 외모 특성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수녀복의 소매길이는 외모특성 요인에만 의미있는 영향을 주어진 소매의 착용자는 시대에 맞지 않고 보기 싫으며 투박한 인상을 주는 반면, 반소매 착용자는 시대에 맞고 보기 좋으며 투박하지 않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연(1999)의 웨딩드레스 연구에서 소매는 매력성, 단정성, 여성적, 귀여움성 4개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7부-레이스 러플 슬리브가 가장 매력적이며 여성적이고 귀엽게 지각되었으며 플라운스 슬리브가 가장 단정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롱 타이트 슬리브는 가장 매력적이지 않고 여성적이지 않으며 귀엽지 않게 지각되었고, 슬리브리스는 가장 단정하지 않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김일분, 유태순(1999)의 연구에서 소매의 피트(fit)성이 큰 순서대로 피트형>노멀형>빅형으로 분류하여 유행성, 품위성, 활동성의 3가지 의복이미지와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피트형 소매는 유행성 이미지가, 노멀형은 품위성 이미지가, 빅형 소매는 활동성 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볼 때 소매는 경연성, 매력성, 품위, 개성, 여성적, 귀여움성, 현시성 차원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소매는 길이와 형태, 다른 의복 디자인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따라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된다고 할 수 있다.

4. 액세서리 착용과 이미지 지각

액세서리의 주된 역할은 전체적인 옷차림과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평범한 의복에 액센트를 줌으로써 의복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다. 또한 액세서리는 단순한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을 다양한 이미지로 연출시키는데 유용하며,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다(Arbetter, 2003).

현대 사회에서는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연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액세서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국내 액세서리 시장 규모는 2004년 기준으로 약 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귀금속 시장의 규모는 3000억 원 정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액세서리 시장은 귀금속 전문점과 백화점 이외에 SPA샵, 할인점, 아울렛,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등 다양한 유통형태의 등장으로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유통업체 별 새로운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신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은, 정성지, 김동건, 2011).

액세서리 중 얼굴 가까이 착용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영향을 주게된다. 얼굴은 사람을 인식할 때 가장 오랫동안 시선을 끄는 신체 의 한 부분이며, 우리는 첫 대면 시 90% 이상이 얼굴을 가장 깊게 응시한다. 따라서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얼굴 가까이 액세서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보게 될 것이다(안동연,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이미지와 외모 전체에 큰 영향을 주는 액세서리 중 얼굴 근처에서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세서리인 목걸이, 귀걸이 및 코사지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목걸이 착용과 이미지

목걸이는 목이나 앞가슴을 장식하는 줄 모양 또는 고리모양으로 된 장신구로, 원시시대부터 힘과 용맹의 상징으로 짐승의 뼈나 이빨을 목에 걸었던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다. 각종 주술적인 요소와 계급, 신분의 상징적인 요소로 쓰였던 목걸이는 점차 장식성이 더해져 의복의 목둘레선에 맞추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면서 착용되었다(조진아 외, 2002).

목걸이는 보통 길이에 따라 목둘레 높이 착용되는 초커(Choker, 35~40cm), 초커보다 길고 마티니보다는 짧은 프린세스(Princess, 42~50cm), 보통 한 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슴골 위까지 오는 마티니(Matinee, 56~58cm), 흉골 위에 놓이는 오페라(Opera, 75~90cm), 오페라보다 긴 로프(Rope, 100cm 이상)로 분류할 수 있다(윤성원, 2012).

목걸이는 착용자의 얼굴형이나 체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결점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착용될 때 가장 돋보이게 된다. 즉, 타원형이나 V형으로 떨어지는 목걸이는 시선을 상하로 이동시켜 좁으면서 둥근 원형의 얼굴형을 보완해 주고, 타원형이나 둥근형의 목걸이는 역삼각형이나 사각형의 얼굴의 각이 진 턱 선을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비만 체형의 여성인 경우 부피가 큰 환형의 목걸이는 뚱뚱한 체형을 강조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고, 납작한 판형의 목걸이가 가장 좋은 선택이다(Arbetter, 2003). 또한 목걸이를 선택할 때에는 목의 형태도 고려해야 하는데, 목이 길거나 가는 경우에는 초커나 프린세스 길이처럼 수평적인 라인이 강한 목걸이가 잘 어울리며, 목이 짧거나 굵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U나 V자형으로 된 긴 오페라나 로프 길이의 목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안동연, 2013).

목걸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액세서리 종류와 형태에 따른 의복의 이미지 지각, 고정관념,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신구 착용과 재킷 색에 대한 선행연구(이명희, 강승희, 1998)에서 큰 장신구(큰 목걸이/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작은 장신구(작은 목걸이/작은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능력 있게 보였으나 품위는 낮게 지각되었다. 흰색이나 검정색 재킷에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가장 능력이 낮게, 검정색 재킷에 큰 장신구를 착용하였을 때는 가장 능력 있게 지각되었으나,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검정 재킷에 작은 장신구를 착용한 경우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액세서리 착용의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 연구(이명희, 2006)에서 액세서리 이미지 요인은 전문성, 귀여움성, 여성성, 매력성, 개성 요인이 추출되었다. 목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여성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며,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전문성과 개성이 낮게 지각되었다. 지각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40대가 스카프나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20대가 착용했을 때보다 전문성과 여성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또한 액세서리에 관심이 낮은 집단은 목걸이를 착용한 20대와 40대 여성을 유사하게 지각하였으나, 액세서리에 관심이 높은 집단은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의 20대를 40대보다 더 귀엽게 평가하였다.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관한 선행연구(한명숙, 2004)에서 목걸이는 ‘여선생님답다’에서 높게 평가되어 목걸이가 반지, 귀걸이, 팔찌, 머리핀, 스카프와 함께 여자다움을 나타내는 액세서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년(2004)의 직장여성의 외적 이미지 메이킹 인식정도에 관한 연구에서 직장여성들이 비교적 많이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목걸이나 반지, 귀걸이로 나타났으며, 액세서리 착용에 의하여 가장 추구하고 싶은 이미지는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가 5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섹시하고 매력적인 이미지가 27.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대생의 신체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장신구 착용에 관한 신주동, 최종

명(2008)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소유한 액세서리는 귀걸이-목걸이-반지-헤어핀-시계-팔찌-헤어밴드-브로치-발찌 순으로 나타났고, 착용 빈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귀걸이-목걸이-반지의 순으로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걸이는 귀걸이 다음으로 여대생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고 착용 빈도 또한 높은 액세서리임을 알 수 있었다.

성인여성의 액세서리 착용에 관한 최수경(2010)의 연구에서 목걸이, 귀걸이, 헤어액세서리, 시계는 20대 여성과 미혼 여성의 착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업에 따른 액세서리 착용에 차이가 나타나 귀걸이, 헤어액세서리, 시계는 학생이 높은 착용 빈도를 보인 반면 목걸이는 사무직 여성이 높은 착용 빈도를 보였다. 또한 액세서리의 종류에 따른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추구이미지에 차이가 나타나, 품위 있고 현시적인 의복이미지를 추구하거나 매력적이고 온유한 헤어스타일을 나타내려는 여성은 목걸이의 착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에서 목걸이는 여성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영향을 주는 단서로서 여성성, 능력, 품위, 젊음, 전문성이 다르게 지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목걸이는 귀걸이 다음으로 여대생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착용 빈도도 높은 액세서리로 의복 스타일, 얼굴형 및 체형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귀걸이 착용과 이미지

귀걸이는 장신구를 귓볼에 구멍을 뚫어 관통시키거나, 걸치거나, 늘어뜨려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귀걸이의 종류는 귀에 밀착되는 스타일로 면을 강조하는 스타드(stud) 형, 귓볼을 둥글게 감싸는 스타일인 후프(hoop) 형, 귀에서 길게 늘어지는 스타일인 드롭(drop)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안동연, 2013).

귀걸이의 역할은 얼굴을 화사해 보이게 하며, 외모의 결점으로부터 주의를 환기시킨다. 귀걸이의 모양은 착용자의 얼굴형과 반복되는 형태는 피하고 보완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귀걸이는 착용자의 목과 얼굴을 가늘어 보이게 하는데, 특히 드롭 귀걸이는 목과 얼굴을 길어보이게 하고 착용자의 키가 커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너무 긴 드롭 귀걸이는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 턱선 바로 밑까지 오는 길이를 고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Arbetter, 2003).

귀걸이에 관한 선행연구는 의복의 이미지 지각 연구, 고정관념, 착용 실태에 관한 연구가 주로 다른 액세서리와 함께 이루어져 왔으며 그 내용을 귀걸이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주동, 최종명(2008)의 연구에 의하면 귀걸이는 여대생의 83.9%가 소유하고 있고, 75%의 여대생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액세서리라고 응답하였으며, 일인당 평균 13.9개의 귀걸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대생의 67%가 항상 귀걸이를 착용한다고 하였고 9.2%는 자주 착용한다고 하여 76.2%의 여대생은 거의 매일 귀걸이를 착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명숙(2004)의 장신구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귀걸이는 ‘여학생답다’와 ‘여선생님답다’가 높게 평가되어 여자다움을 나타내는 액세서리로 나타났다.

최수경(2010)의 연구에서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추구이미지와 액세서리 착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발랄하고 캐주얼하고 젊어보이는 의복이미지나 청순하고 발랄하고 귀여운 헤어스타일을 추구하는 여성은 귀걸이의 착용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애(2005)의 연구에서 귀걸이 이미지의 차원은 매력성, 귀여움, 화려함, 부드러움의 4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귀걸이 형태 중 라인형이 밀착형보다 더 매력적인 이미지로, 밀착형 귀걸이가 라인형보다 더 귀엽고 화려한 이미

지로 평가되었다. 또한 귀걸이 재료 중에서는 금, 은, 플라스틱에 비해 진주가 가장 매력적이며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전체 자극물에 대한 이미지 지각의 차이에서 다이아몬드 밀착형이 가장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플라스틱 라인형은 가장 매력적이지는 않으나 가장 귀엽고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금소재의 밀착형은 가장 귀엽지 않고 화려하지 않은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은소재의 밀착형과 진주의 밀착형은 가장 부드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정수진과 최수경(2009)의 연구에서 귀걸이, 넥라인, 헤어스타일의 이미지를 요인분석한 결과, 주의집중성, 매력성, 품위성, 귀염성의 4가지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큰 귀걸이를 했을 경우나 로우 넥라인일 때 각각 주의집중성, 매력성이 높게 나타났고, 중간 크기의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넥라인에 따라 주의집중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귀걸이는 넥라인과 헤어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그 효과는 독립적인 영향보다 다른 요소와의 조합을 통해서 상승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이미지 지각 시 귀걸이, 넥라인, 헤어스타일은 정보로서 갖는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코디네이션 되어 전반적인 이미지로 통합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이명희, 송원영(2011)의 연구에서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은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개성, 매력, 역능성, 귀염성, 품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귀걸이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귀걸이는 젊은 여성들이 자주 착용하는 액세서리로 의복과 상호작용하여 이미지가 달리 나타나며, 귀걸이 착용에 의하여 여성적이며 발랄하고 젊어 보이는 이미지가 추구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귀걸이는 여성의 얼굴에 가깝게 착용되어 이미지 지각에 있어 의미있는 단서로서 개성, 매력, 역능성, 귀염성, 품위, 화려함 등의 요인에 영향을 주었다.

3) 코사지 착용과 이미지

코사지(corsage)는 19세기에 기원한 프랑스어로 드레스의 윗부분 또는 길 (bodice)을 의미하며, 영어로는 주로 의복의 앞길이나 한쪽 어깨에 다는 작은 꽃장식을 말한다(Cumming, Cunnington, & Cunnington, 2010).

코사지는 클래식 이미지의 액세서리(김혜경, 2008)로 생화나 조화를 소재로 한 브로치라고 할 수 있다.

코사지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관한 선행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나, 관련 연구로 의복이나 웨딩드레스의 장식 유형이나 의복과 스카프와 같은 액세서리의 배색에 따른 이미지 연구가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hurston, Lennon, & Clayton(1990)의 연구에서 여성의 전문적 이미지는 의복이나 장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최신 유행 장식이 일반 유행 장식이나 클래식 장식보다 전문적 이미지가 낮게 평가되었다.

오종은(1995)의 신세대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신세대는 코사지를 청재킷이나 티셔츠같은 캐주얼 의복에 착용함으로써 타인의 시선을 끌고 고정관념을 깨는 시도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적인 프릴과 레이스로 장식된 옷에 코사지를 달았을 경우, 기성세대에게는 ‘조화’로 받아들여 질지 모르나 신세대에게는 그것이 촌스럽고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백진주, 박천호, 광병화 (1995)의 꽃장식의 재료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 코사지로 주로 사용되는 꽃은 장미(59.9%), 덴파레(16.2%), 카네이션(12.7%)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선호하는 색채는 분홍(43.8%), 흰색(24.6%), 빨강(24.6%) 순으로 나타났다. 장미는 분위기에 맞는 색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고, 덴파레와 카네이션은 장미에 비해 수명이 길기 때문에 야외 행사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1997)는 재킷 색과 스카프 색의 명도 변화에 따른 얼굴 밝기의 착시 실험을 한 결과, 흰 재킷일 때 스카프 색의 명도가 낮아짐에 따라 얼굴 밝기는 점점 밝아보였고, 검은색의 재킷에서는 스카프 색의 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얼굴 밝기는 점점 어두워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부에 근접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스카프의 명도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김일분, 유태순(1999)은 유행성, 품위성, 활동성의 의복이미지와 디테일 요소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카프와 코사지 장식은 유행성과 품위성 이미지를 드러내는 반면, 활동성 이미지는 저하시키는 장식으로 나타났다.

이미연(1999)의 연구에서 허리에 꽃장식이 있는 웨딩드레스는 고전적인 이미지로, 허리에 리본장식이 있는 웨딩드레스는 현대적이고 부드러우며 상냥하며 밝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경림, 박숙현(2006)의 연구에서 의복의 조형요소에 따른 모던 이미지의 차원은 섹시모던, 엘리전트모던, 내추럴모던, 매니쉬모던, 미니멀모던의 5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의복 장식과 모던이미지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한 결과, 엘리전트모던을 제외한 4개의 모던 이미지 요인에서 장식이 없는 것이 더 모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엘리전트모던 요인에서만 장식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모던하면서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디테일이나 트리밍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핸드백과 지갑, 액세서리 등이 유통가의 핫 이슈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특징라고 할 수 있는 브로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곽경호, 2013). 평상시 심플하고 베이직한 의상에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는 스타일을 연출하는 박 대통령은 여성성을 상징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끄는 정치적 의도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화려한 모양보다는 단아하고 의미있는 모

양의 브로치로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 한다는 평가이다(오경희, 2013). 실제로 백화점의 액세서리 브랜드의 브로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10~20%가량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몰에서도 역시 브로치의 인기가 높아져 11번가는 1월부터 2월까지 브로치 매출이 전년대비 10% 상승했으며, G마켓은 박 대통령 취임 후 2주 동안 브로치 판매가 급증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250% 증가했다고 하였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브로치를 즐겨 착용하면서 백화점, 온라인 등 패션업계에서 브로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브로치는 자칫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이었으나 최근 새로운 액세서리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윤희나, 2013).

이와 같이 코사지같은 의복 위에 착용하는 브로치 액세서리는 종류와 착용유무에 따라 화려함, 귀여움, 고전적, 현대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며, 코사지의 경우 의복 위에 직접 착용되어 의복과 색상대비를 이루면서 개성, 활동성, 부드러움, 따뜻함 등 다양한 인상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김정 드레스를 착용한 20대 여성을 지각대상자로 하여 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및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추론의 차이를 알아보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 지각의 차원을 조사한다.
2. 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실루엣, 스커트 길이, 넥라인, 소매)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한다.
3. 액세서리(목걸이, 귀걸이, 코사지)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한다.
4. 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와 상호작용효과를 조사한다.
5. 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조사한다.
6. 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한다.
7.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한다.
8. 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 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준 실험방법으로 실험설계는 피험자간(between-subjects) 설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는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자의 이미지를 제시하는 자극물과 이에 대한 지각자의 반응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 지각자의 연령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자극물

(1) 실험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지각대상자로서의 자극물은 검정 드레스를 입은 여성의 모습으로 의복단서 변인을 디자인 요소(실루엣, 스커트길이, 네크라인, 소매)와 액세서리(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종류, 크기, 색과 착용여부에 따라 변화시킨 것이다.

자극물의 수는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전신 자극물 24개,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자의 상반신 자극물 18개로 총 42개이며, 각 실험설계별 변인의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① 실험설계 A: 2×3×2×2의 요인설계로 독립변인은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2), 스커트 길이(3), 네크라인(2), 소매(2)이며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의 변화에 따른 지각자의 인상평가이다.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 변인은 스커트의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A라인 스커트와 플레어 스커트로 정하였다. 스커트 길이는 미니(mini), 무릎길이, 미디(midi)로 정하였으며, 네크라인은 라운드 네크라인(round neckline), 보트 네크라인(boat neckline)을 택하였고, 소매는 슬리브리스(sleeveless), 쇼트 슬리브(short sleeve)로 정하였다.

② 실험설계 B: 2×3×3의 요인설계로 독립변인은 검정 드레스와 함께 착용한 목걸이(2), 귀걸이(3), 코사지(3)이다. 목걸이 변인은 목걸이 착용과 목

겉이 비착용으로 정하였고, 귀걸이는 작은 귀걸이, 큰 귀걸이, 귀걸이 비착용의 경우를 포함하였다. 코사지는 빨강 코사지, 흰색 코사지, 코사지 비착용의 경우로 정하였다. 라운드 넥라인과 쇼트 슬리브로 이루어진 검정 드레스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표 2> 실험설계의 변인 조작 내용

독립 변인	실험설계							요인 설계
	실루엣	스커트길이	넥라인	소매	목길이	귀걸이	코사지	
실험 집계	A라인 플레이어	미니 무릎길이 미디	라운드 보트	슬리브리스 쇼트	착용 비착용	큰 귀걸이 작은 귀걸이 비착용	빨강 코사지 흰색 코사지 비착용	
A	√	√	√	√				2×3×2×2
B					√	√	√	2×3×3

(2) 자극물의 변인 선정

① 실루엣: 실루엣의 변인은 스커트 형태로 변화시켰으며 A라인 스커트와 플레이어 스커트로 정하였다. A라인 스커트는 검정색 드레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기본형 스커트이며, 플레이어 스커트는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을 표현하면서, 기본형인 A라인과 대조되는 실루엣이므로 선택하였다. A라인 스커트로 구성된 실루엣은 상체는 잘 맞고 힙 선부터 밑단까지 A형을 이루며 살짝 퍼지는 형태이고, 플레이어 스커트로 이루어진 실루엣은 상체는 잘 맞고 힙 선부터 밑단으로 갈수록 플레이어를 이루며 넓게 퍼지는 형태이다.

② 스커트 길이: 스커트 길이는 무릎을 기준으로 무릎 위 15cm 길이의 미니 스커트, 무릎 관절 중간정도 길이의 무릎길이 스커트, 무릎 밑 15cm 길이의 미디 스커트로 설정하였다.

③ 넥라인: 가장 기본적인 넥라인인 라운드 넥라인, 브이 넥라인, 스퀘어 넥라인, 보우트 넥라인, 하이 넥라인(이영미, 서미아, 1998) 중에서 둥그런 모양의 라운드 넥라인과 약간 둥글고 가로로 넓게 파진 보트

넥크라인의 두 가지 종류를 선택하였다. 라운드 넥크라인은 옆목점과 앞목점에서 3.5cm 정도 둥글게 파인 넥크라인, 보트 넥크라인은 옆목점에서는 6cm, 앞목점에서는 3cm 정도 완만하게 파인 넥크라인으로 정하였다.

④ 소매: 검정 드레스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소매가 달려 있지 않은 슬리브리스와 짧은 소매인 쇼트 슬리브를 선택하였다.

⑤ 목걸이: 목걸이는 귀걸이와 함께 여성들이 많이 소유하면서 착용빈도 또한 높은 장식적인 액세서리이며, 진주 목걸이는 어떤 옷에나 잘 어울린다(이경희, 김윤경, 김애경, 2012)는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진주 목걸이를 택하였다. 직경 0.9cm의 진주 한 줄로 이루어진 프린세스(42cm) 길이의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과 목걸이 비착용의 경우를 조사하였다.

⑥ 귀걸이: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착용빈도가 가장 높은(최수경, 2010) 귀걸이를 연구 변인으로 선택하여 작은 귀걸이, 큰 귀걸이, 귀걸이 비착용의 경우를 조사하였다. 즉 작은 귀걸이로는 귓볼에 밀착되는 직경 1.2cm의 진주로 된 스타드(stud)형 귀걸이로 정하였다. 큰 귀걸이는 직경 0.9cm의 진주 1개에 귓볼 아래 2.7cm 길이의 물방울 모양이 늘어진 드롭(drop)형 진주 귀걸이로 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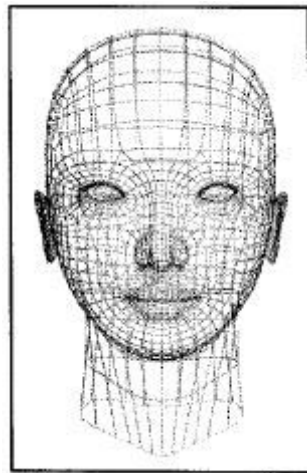
⑦ 코사지: 의복 위에 직접 착용하여 검정 의복과 대비되는 색이면서 코사지 색으로서 선호도가 높은(백진주, 박천호, 광명화, 1995) 빨강 코사지와 흰색 코사지를 택하였고 코사지 비착용의 경우도 포함하였다. 코사지의 꽃 모양의 직경은 7cm이다.

(3) 자극물 제작방법

① 1단계: 자극물 모델

지각대상자인 자극물 모델 전신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모델의 자세가 가장 정면이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시되고 팔과 다리가 되도록 많이 드러난 바른 자세의 모델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저장

된 모델 전신 이미지는 제 6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SIZE KOREA 자료에 제시된 20대 여성의 표준 인체치수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체형에 가깝도록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자극물 모델 얼굴은 인터넷에서 한국 표준 여성의 정면 얼굴 이미지를 수집, 합성하여 사용하였으며, 이철웅, 김일민, 조세홍(2009)이 한국인 얼굴 표준 정보를 토대로 구축한 한국인 표준 얼굴 모델(그림 12)에 적용하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변형시켰다. 모델의 헤어스타일은, 20대 여성들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헤어스타일은 긴 생머리가 가장 매력적인 이미지로 나타난 선행연구(정해선, 강경자, 2004)를 참고로 하여 긴 생머리가 어깨 뒤로 넘어가는 스타일을 자극물 모델에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합성시켰다.



<그림 12> 한국 여성의 표준 얼굴(이철웅 외, 2009)

② 2단계: 검정 드레스

검정 드레스 자극물은 디자인 요소별 부분적인 디자인을 연구목적에 맞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정한 후 1단계에서 완성된 자극물 모델에게 시뮬레이션(simulation)시켰다. 완성된 자극물에서 의복착용자의 얼굴, 자세,

헤어스타일, 구두, 배경색과 같은 과외 변인들은 일정하게 통제시켰다. 구두는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검정색 구두로 정하여 포토샵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배경색은 인상이나 이미지 측정을 위한 자극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무채색을 배경으로 했을 경우 검정 드레스가 너무 칙칙해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연한 파란색으로 하였다.

③ 3단계: 액세서리

목걸이, 귀걸이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진주 목걸이, 작은 진주 스톤 귀걸이, 큰 진주 드롭 귀걸이를 택하여 포토샵으로 수정하였다. 코사지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빨강 코사지를 택하여 사용하였고 포토샵을 이용하여 흰색으로 변형하여 흰색 코사지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완성된 액세서리는 진주 목걸이, 작은 귀걸이, 큰 귀걸이, 빨강 코사지, 흰색 코사지였다.

④ 4단계: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단서와의 합성

액세서리 착용 자극물 모델은 2단계에서 완성한 자극물 모델 중 가장 일반적인 스타일인 라운드 넥라인에 쇼트 슬리브로 이루어진 검정 드레스를 착용한 모델을 택하여 허리 위 5cm 지점까지의 상반신 사진을 이용하였다. 여기에 3단계에서 완성된 액세서리 단서를 실험 목적에 맞게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합성하였다.

따라서 완성된 자극물의 수는 실루엣(2)×스커트 길이(3)×넥라인(2)×소매(2)를 조합한 24개의 전신 자극물과, 목걸이(2)×귀걸이(3)×코사지(3)를 조합한 18개의 상반신 자극물을 합하여 총 42개이며, 완성된 자극물은 1~42의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자극물을 1~24번까지의 전신은 8cm×20cm 사이즈로, 25~42번까지의 상반신 사진은 10cm×15cm 사이즈의 칼라 사진으로 출력하였다. 완성된 자극물 단서의 변인조작 내용은 <표 3, 4>, 1번부터 42번까지의 자극물 사진은 <부록 3>의 <그림 1~5>이며, 사진의 예는 <그림 13, 14>와 같다.

<표 3> 검정 드레스 자극물의 변인 조작 내용

No	A-라인 스커트	No	플레어 스커트
1	미니-라운드 넥라인-슬리브리스	13	미니-라운드 넥라인-슬리브리스
2	미니-라운드 넥라인-쇼트 슬리브	14	미니-라운드 넥라인-쇼트 슬리브
3	미니-보트 넥라인-슬리브리스	15	미니-보트 넥라인-슬리브리스
4	미니-보트 넥라인-쇼트 슬리브	16	미니-보트 넥라인-쇼트 슬리브
5	무릎길이-라운드 넥라인-슬리브리스	17	무릎길이-라운드 넥라인-슬리브리스
6	무릎길이-라운드 넥라인-쇼트 슬리브	18	무릎길이-라운드 넥라인-쇼트 슬리브
7	무릎길이-보트 넥라인-슬리브리스	19	무릎길이-보트 넥라인-슬리브리스
8	무릎길이-보트 넥라인-쇼트 슬리브	20	무릎길이-보트 넥라인-쇼트 슬리브
9	미디-라운드 넥라인-슬리브리스	21	미디-라운드 넥라인-슬리브리스
10	미디-라운드 넥라인-쇼트 슬리브	22	미디-라운드 넥라인-쇼트 슬리브
11	미디-보트 넥라인-슬리브리스	23	미디-보트 넥라인-슬리브리스
12	미디-보트 넥라인-쇼트 슬리브	24	미디-라운드 넥라인-슬리브리스

<표 4> 액세서리 자극물의 변인 조작 내용

No.	목걸이 착용	No.	목걸이 비착용
25	작은 귀걸이-빨강 코사지	34	작은 귀걸이-빨강 코사지
26	작은 귀걸이-흰색 코사지	35	작은 귀걸이-흰색 코사지
27	작은 귀걸이-코사지 비착용	36	작은 귀걸이-코사지 비착용
28	큰 귀걸이-빨강 코사지	37	큰 귀걸이-빨강 코사지
29	큰 귀걸이-흰색 코사지	38	큰 귀걸이-흰색 코사지
30	큰 귀걸이-코사지 비착용	39	큰 귀걸이-코사지 비착용
31	귀걸이 비착용-빨강 코사지	40	귀걸이 비착용-빨강 코사지
32	귀걸이 비착용-흰색 코사지	41	귀걸이 비착용-흰색 코사지
33	귀걸이 비착용-코사지 비착용	42	귀걸이 비착용-코사지 비착용



자극물1. A라인-미니-라운드 넥라인-슬리브리스



자극물6. A라인-무릎길이-라운드 넥라인-쇼트 슬리브



자극물19. 플레어-무릎길이-보트 넥라인-슬리브리스



자극물24. 미디-보트 넥라인-쇼트 슬리브

<그림 13> 검정 드레스 착용 자극물



자극물 25. 목걸이-작은 귀걸이-빨강 코사지



자극물 29 목걸이-큰 귀걸이-흰색 코사지



자극물 35. 작은 귀걸이-흰색 코사지



자극물 37. 큰 귀걸이-빨강 코사지

<그림 14> 액세서리 착용 자극물

2) 질문지

검정 드레스 착용자에 대한 이미지 지각을 측정하는 의미미분척도는 선행 연구(Thurston, Lennon, & Clayton 1990; 이웅휘, 강경자, 1997; 이미연, 1999;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정수진, 최수경, 2009; 이명희, 송원영, 2011; 외)에서 사용한 용어를 참고로 하여 수집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수집된 용어는 중복되는 것과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부적절한 형용사를 제외한 27개의 형용사쌍을 최종 선정하였다. 선호도는 ‘내가 좋아하는-내가 싫어하는’, ‘보기 좋은-보기 싫은’, ‘호감이 가는-호감이 가지 않는’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총 30개의 형용사쌍이 선정되었으며, 의미미분척도는 7점 양극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었다. 형용사쌍의 문항구성과 출처는 <부록 1>과 같다.

자극물의 연령 평가를 위해 제시된 자극물을 관찰하고 기입하도록 하였고, 자극물 가정의 월 소득 추론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택형 문항을 사용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인은 지각자의 연령을 조사하는 내용으로서 연령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3.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으로 임의표집 하였고 총 7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711부가 회수되었으나 이 중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불성실한 65부를 제외한 646부를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3월 4일~29일이었다.

한 개의 자극물에 각각 28~45명씩 반응하였고, 한 명의 피험자가 2개의 자극물에 반응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42개의 자극물을 평가한 전체 조사대상자는 여대생 646명이었다. 검정 드레스 착용 자극물을 평가한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9세 이하가 231명(33.9%), 20세~21세가 235명(34.4%), 22세~23세가 137명(20.1%), 24세 이상이 79명(11.6%)이었다. 액세서리 착용 자극물을 평가한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9세 이하가 226명(37.0%), 20세~21세가 221명(36.2%), 22세~23세가 112명(18.3%), 24세 이상이 51명(8.4%)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고 통계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 Cronbach의 α 신뢰도 검증, 일원변량분석, 삼원변량분석, 사원변량분석, t -test, Duncan의 다중범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1) 검정 드레스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검정 드레스 착용에 따른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지 지각을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7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다. 각 요인에서 부하량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항을 요인별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1차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내용과 문항이 일치하지 않는 4개 문항을 제외하고 23개 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이 선택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5>와 같다.

요인 1은 모두 5개 문항으로 개성있는-개성없는, 독특한-평범한, 눈에 띄는-눈에 띄지 않는 등이 포함되어 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32 이상이었다. 요인 2는 모두 5개 문항으로 상냥한-무뚝뚝한, 부드러운-따뜻한, 여성적인-남성적인 등이 포함되어 여성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86 이상이었다. 요인 3은 모두 5개 문항으로 지성적인-비지성적인, 책임성있는-책임성없는, 전문직같은-전문직같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전문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74 이상이었다. 요인 4는 모두 4개 문항으로 세련된-촌스러운, 현대적인-고전적인, 모던한-모던하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현대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615 이상이었다. 요인 5는 모두 4개 문항으로 활동적인-비활동적인, 발랄한-점잖은, 자신감있는-자신감없는 등이 포함되어 활동성 요인

<표 5> 검정 드레스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요인 1. 개성	요인부하량
개성있는 - 개성없는	.802
독특한 - 평범한	.798
강렬한 - 무난한	.736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661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532
변량 = 14.56% 누적변량 = 14.56%	
고유치 = 3.35 a 신뢰도 = .828	
요인 2. 여성성	요인부하량
상냥한 - 무뚝뚝한	.810
부드러운 - 딱딱한	.799
따뜻한 - 차가운	.724
낭만적인 - 낭만적이 아닌	.652
여성적인 - 남성적인	.586
변량 = 13.23% 누적변량 = 27.79%	
고유치 = 3.04 a 신뢰도 = .801	
요인 3. 전문성	요인부하량
지성적인 - 비지성적인	.737
책임성있는 - 책임성없는	.731
성공적인 - 성공적이지 않은	.713
전문직같은 - 전문직같지 않은	.626
이성적인 - 감성적인	.574
변량 = 12.99% 누적변량 = 40.78%	
고유치 = 2.99 a 신뢰도 = .736	
요인 4. 현대성	요인부하량
세련된 - 촌스러운	.663
현대적인 - 고전적인	.659
모던한 - 모던하지 않은	.637
도회적인 - 도회적이지 않은	.615
변량 = 10.92% 누적변량 = 51.70%	
고유치 = 2.51 a 신뢰도 = .772	
요인 5. 활동성	요인부하량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767
발랄한 - 점잖은	.703
자신감있는 - 자신감없는	.638
젊어 보이는 - 성숙한	.477
변량 = 9.68% 누적변량 = 61.38%	
고유치 = 2.23 a 신뢰도 = .792	

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477 이상이었다. 5개 요인은 고유치가 2.23 이상이었으며,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77 이상이었으며, 요인 5까지의 누적변량은 61.38%였다. 검정 드레스 착용 이미지 요인으로 추출된 5개 요인의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는 개성, 여성성, 전문성, 현대성, 활동성은 각각 .828, .801, .736, .772, .792로서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2)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지 지각을 평가하는 의미미분척도 형용사 27개 문항에 대하여 주성분 분석과 Varimax 회전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최소 고유치 1 이상의 기준에 의하여 5개 요인을 택하였다. 각 요인에서 부하량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문항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항을 요인별로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1차 요인분석에서 요인의 내용과 문항이 일치하지 않는 3개 문항을 제외하고 24개 문항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5개의 요인이 선택되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문항은 <표 6>과 같다.

요인 1은 모두 7개 문항으로 지성적인-비지성적인, 책임성있는-책임성 없는, 성공적인-성공적이지 않은, 전문직같은-전문직같지 않은 등이 포함되어 전문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16 이상이었다. 요인 2는 모두 5개 문항으로 강렬한-무난한, 독특한-평범한, 개성있는-개성없는 등이 포함되어 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430 이상이었다. 요인 3은 모두 5개 문항으로 상냥한-무뚝뚝한, 여성적인-남성적인, 부드러운-따뜻한 등이 포함되어 여성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44 이상이었다. 요인 4는 모두 4개 문항으로 매력있는-매력없는, 세련된

<표 6> 엑세서리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요인 1. 전문성	요인부하량
지성적인 - 비지성적인	.749
책임성있는 - 책임성없는	.726
성공적인 - 성공적이지 않은	.685
이성적인 - 감성적인	.614
모던한 - 모던하지 않은	.602
전문직같은 - 전문직같지 않은	.531
자신감있는 - 자신감없는	.516
변량 = 15.40% 누적변량 = 15.40%	
고유치 = 3.70 a 신뢰도 = .785	
요인 2. 개성	요인부하량
강렬한 - 무난한	.828
독특한 - 평범한	.809
섹시한 - 섹시하지 않은	.702
개성있는 - 개성없는	.581
눈에 띄는 - 눈에 띄지 않는	.430
변량 = 13.72% 누적변량 = 29.12%	
고유치 = 3.29 a 신뢰도 = .810	
요인 3. 여성성	요인부하량
상냥한 - 무뚝뚝한	.695
여성적인 - 남성적인	.665
낭만적인 - 낭만적이지 않은	.619
부드러운 - 딱딱한	.598
따뜻한 - 차가운	.544
변량 = 10.95% 누적변량 = 40.07%	
고유치 = 2.63 a 신뢰도 = .769	
요인 4. 매력성	요인부하량
매력있는 - 매력없는	.765
세련된 - 촌스러운	.677
도회적인 - 도회적이지 않은	.555
멋있는 - 멋없는	.411
변량 = 10.86% 누적변량 = 50.93%	
고유치 = 2.61 a 신뢰도 = .820	
요인 5. 귀엽성	요인부하량
젊어 보이는 - 성숙한	.798
귀여운 - 귀엽지 않은	.781
발랄한 - 점잖은	.552
변량 = 10.33% 누적변량 = 61.26%	
고유치 = 2.48 a 신뢰도 = .708	

-촌스러운, 멋있는-멋없는 등이 포함되어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411 이상이었다. 요인 5는 모두 3개 문항으로 짝어 보이는-성숙한, 귀여운-귀엽지 않은, 발랄한-점잖은 등이 포함되어 귀염성 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부하량은 .522 이상이었다. 5개 요인은 고유치가 2.48 이상이었고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411 이상이며 누적변량의 총 백분율은 61.26%였다.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 요인으로 추출된 5개 요인의 Cronbach의 α 신뢰도 계수는 전문성, 개성, 여성성, 매력성, 귀염성이 각각 .785, .810, .769, .820, .708로서 신뢰도가 만족할 만 하였다.

이상에서 결정된 검정 드레스 착용의 이미지 5개 요인과 액세서리 착용의 이미지 5개 요인은 각각 요인의 문항 점수를 합하여 문항 수로 나눈 후 계속되는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2.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의 결과에 의하면, 실루엣은 개성, 활동성 차원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여성성, 전문성, 현대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실루엣의 각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A라인 스커트 실루엣은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보다 더 전문적이고 모던하게 지각되었고,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은 A라인 스커트 실루엣보다 더 여성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는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과 같은 범주로 볼 수 있는 X-라인은 여성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이경희(1991)의 연구와 일치하며, 돛형 실루엣과 벨형 실루엣은 여성적으로 지각된다는 이미연(199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스커트 폭이 넓은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는 부드러운 인상으로 지각된다는 이웅휘, 강경자(1997)의 연구와도 같은 결과였다.

스커트 길이는 여성성 차원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개성, 전문성, 현대성, 활동성 차원에서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균치와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조사한 결과, 개성 차원에서 미니 스커트는 무릎길이 스커트나 미디 스커트보다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짧은 드레스 착용자는 긴 드레스 착용자에 비해 눈에 띄고 화려한 인상으로 지각된다는 이주현, 강혜원(199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전문성 차원에서는 무릎길이 스커트가 가장 전문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그 다음이 미디 스커트, 미니 스커트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니 스커트가 가장 전문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짧은 스커트의 수트 착용자는 덜 사무적인 이미지로 지각된다는 이주현, 조궁호(199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현대성, 활동성 차원은 미니>무릎길이>미디 스커트 순으로

<표 7>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개성 F	여성성 F	전문성 F	현대성 F	활동성 F	
실루엣(A)	1	.006	15.68**	8.17**	6.28*	1.70	
스커트 길이(B)	2	15.81**	1.44	8.09**	24.78**	53.19**	
네크라인(C)	1	.26	.27	.52	.73	3.82**	
소매(D)	1	11.96**	.17	.08	6.10*	9.48**	
A×B	2	.15	1.84	.05	.42	.61	
A×C	1	5.78*	.22	.31	.03	.08	
A×D	1	1.00	.70	3.40	1.80	.27	
B×C	2	.43	.63	.15	1.08	.13	
B×D	2	1.61	.05	.62	.35	2.56	
C×D	1	.28	1.18	.11	.00	.00	
A×B×C	2	.25	.72	.84	.27	.50	
A×B×D	2	.61	2.17	1.98	.19	1.08	
A×C×D	1	.24	1.31	.41	.20	.69	
B×C×D	2	1.01	.67	.08	.30	.07	
A×B×C×D	2	.40	.19	1.71	.46	.44	
집단 내 오차	658						
변인	속성	N	M	M	M	M	M
실루엣	A라인	340	2.37	3.89	4.42	3.79	3.16
	플레어	342	2.36	4.21	4.22	3.58	3.27
스커트 길이	미니	225	2.67a	4.08	4.14c	3.99a	3.76a
	무릎길이	230	2.26b	4.11	4.49a	3.76b	3.17b
	미디	227	2.17b	3.95	4.32b	3.30c	2.72c
네크라 인	라운드	343	2.35	4.07	4.29	3.65	3.30
	보트	339	2.39	4.03	4.34	3.72	3.13
소매	슬리브리스	338	2.50	4.06	4.33	3.79	3.34
	쇼트슬리브	344	2.23	4.03	4.31	3.58	3.09

* $p < .05$, ** $p < .01$,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높게 나타났다. 즉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모던하고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는 스커트 길이에 있어서 허벅지 길이는 짧고 외향적으로 지각된다는 Gibbins와 Coney(1981)의 연구 결과와 활동성 차원에서 유사하였다. 또한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개성과 활동성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이정순, 김정미(2008)와 일치하였고, 스커트 길이가 짧은 경우 능력/활동성 요인이 높게 평가된 최수경, 강경자(200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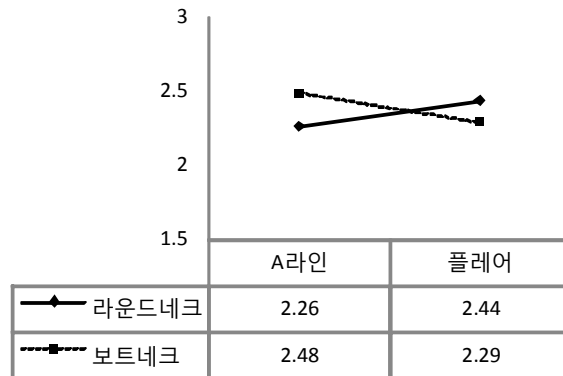
네크라인은 활동성 차원에서만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고 개성, 여성성, 전문성, 현대성 차원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네크라인별 평균치를 보면 라운드 네크라인이 보트 네크라인보다 더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는 라운드 네크라인이 일반적으로 캐주얼한 티셔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크라인이므로 보트 네크라인보다 더 활동적인 이미지로 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라운드형의 네크라인이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된 이지현(199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소매는 개성, 현대성, 활동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소매별 평균치를 보면, 3가지 모든 요인에서 슬리브리스 드레스가 쇼트 슬리브 드레스보다 더 개성 있고 모던하며 활동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것은 셋인슬리브(set-in-sleeve)가 달린 기본 소매의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는 멋없고 촌스럽고 주의집중성이 낮으며 꼭 끼는 인상을 준다는 이용휘, 강경자(199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7>에서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개성 요인은 실루엣과 네크라인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에서 A라인 스커트 실루엣에서는 보트 네크라인이,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에서는 라운드 네크라인이 조합된 검정 드레스가 더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같은 실루엣이라도 네크라인 유형에 따라서 의복 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는 이미연(199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네크라인, 소매는 검정 드레스의 전체적인 이미지 지각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의복 단서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스커트 길이는 실루엣, 네크라인, 소매에 비해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



<그림 15> 개성 지각에 대한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과 넥라인의 상호작용형태

요소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는 개성 요인에서만 실루엣과 넥라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넥라인, 소매 등의 의복 디자인 요소보다 검정이라는 의복색채가 의복 이미지 지각에 있어서 더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의복 스타일에 관계없이 유채색보다 무채색 의복이 매력적으로 지각되어 스타일보다 의복 색채의 영향이 더 크다는 김윤경, 강경자(200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볼 때, 검정 드레스의 스커트 길이는 의복 이미지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나타나 인상형성 이론 중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의 결과에 따르면, 목걸이 착용은 전문성, 여성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개성, 매력성, 귀염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착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개성과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은 개성이 낮게 지각된 선행연구(이명희, 2006)의 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한편 귀염성 차원에 있어서는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보다 더 귀여운 모습으로 지각되었다. 선행연구(최수경, 2010)에서 목걸이의 경우 학생보다 사무직 여성에게서 더 높은 착용 빈도를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은 귀여운 이미지보다 주로 사무직 여성에게서 볼 수 있는 성숙하고 점잖은 이미지로 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귀걸이는 여성성, 매력성, 귀염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전문성, 개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균치와 Duncan의 다중 범위검증을 조사한 결과, 전문성 차원에 있어서 작은 귀걸이와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보다 더 전문적인 모습으로 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진주 귀걸이를 착용한 모습은 귀걸이의 형태와 상관없이 능력 있고 지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는 윤영애(2005)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개성 차원에 있어서는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 개성이 가장 높게 지각되었고, 그 다음 작은 귀걸이, 귀걸이 비착용의 순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귀걸이를 착용한 여성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개성적이며 능력 있게 지각되었다는 이명희, 송원영(2011)의 연구 결과와

<표 8>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변량원	df	전문성 <i>F</i>	개성 <i>F</i>	여성성 <i>F</i>	매력성 <i>F</i>	귀염성 <i>F</i>	
목걸이(A)	1	.18	31.88**	3.17	6.56*	21.35**	
귀걸이(B)	2	7.14**	2.96*	1.91	2.55	2.63	
코사지(C)	2	7.67**	13.88**	1.34	2.31	2.56	
A×B	2	6.01**	.24	3.26*	4.40*	.67	
A×C	2	.09	.45	.62	2.14	.21	
B×C	4	.64	1.79	.23	1.58	.44	
A×B×C	4	1.48	4.40**	.91	2.75*	1.15	
집단 내 오차	592						
변인	속성	<i>N</i>	<i>M</i>	<i>M</i>	<i>M</i>	<i>M</i>	<i>M</i>
목걸이	유	270	4.48	3.02	4.28	3.70	2.84
	무	340	4.44	2.56	4.42	3.46	3.27
귀걸이	작은	194	4.63a	2.78ab	4.41	3.67	3.00
	큰	209	4.48a	2.89a	4.42	3.65	3.01
	무	207	4.27b	2.63b	4.23	3.39	3.22
코사지	빨강	206	4.32b	3.07a	4.37	3.56	3.22
	흰색	206	4.42b	2.65b	4.43	3.47	3.01
	무	198	4.64a	2.56b	4.26	3.69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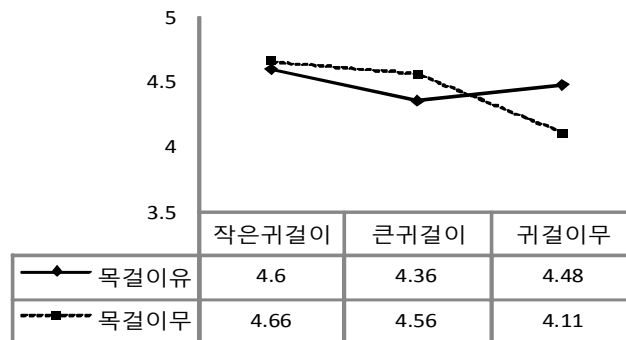
* $p < .05$, ** $p < .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유사하였다.

코사지는 여성성, 매력성, 귀염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전문성, 개성 요인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평균치와 Duncan의 다중 범위검증을 조사한 결과, 전문성 차원에 있어서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빨강 코사지나 흰색 코사지를 착용한 모습보다 전문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속이나 준보석으로 만들어진 브로치와 달리 코사지는 꽃을 소재로 한 조화나 생화로 만들어진 액세서리이며, 보통

결혼식이나 가족의 달 행사 때 많이 볼 수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전문적인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게 평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개성 차원에 있어서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흰색 코사지를 착용하거나 코사지가 없는 경우보다 더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것은 빨간색 계열의 문양이 현시성이 높게 평가된 이소라, 김재숙(2008)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빨강이 강렬함과 섹시함을 연상시키는 색채라는 조필교, 정혜민(1998)의 내용을 지지하였다. 또한 빨강의 경우 자기에게 직접 적용했을 때보다 외계의 물체에 적용했을 때 훨씬 더 강렬하게 보인다는 Birren(2012)의 내용을 지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도 빨강 코사지는 의복에 비해 비중은 적지만 검정 드레스 위에 착용됨으로써 빨강의 색채효과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빨강은 액세서리에 있어서도 의복과 색채대비로 사용할 때 강렬하고 눈에 띄는 이미지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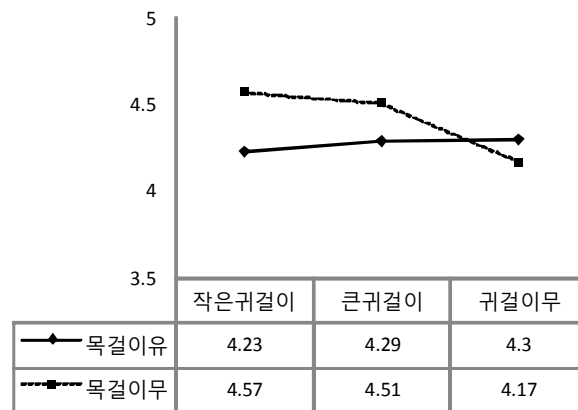
<표 8>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은 목걸이와 귀걸이 착용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6>, <그림 17>, <그림 18>과 같다.



<그림 16> 전문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그림 16>에서 큰 귀걸이를 한 경우는 목걸이를 하지 않은 채 귀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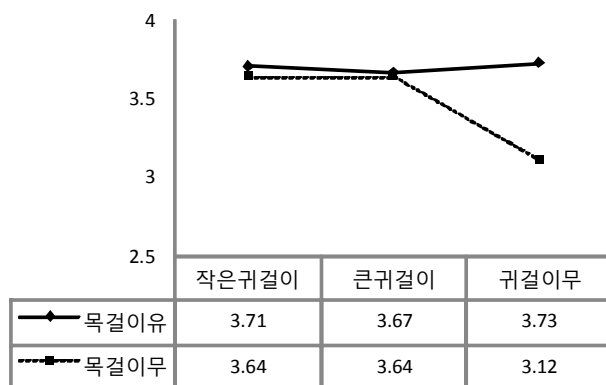
만 했을 때 전문성이 높아졌으나, 작은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목걸이 착용여부에 영향 받지 않고 전문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목걸이만 했을 때는 전문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목걸이마저 하지 않았을 때는 전문성이 매우 떨어졌다. 이는 목걸이 착용이 능력 요인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명희, 강승희(1998)의 연구 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그러나 큰 귀걸이를 한 경우,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는 오히려 전문성이 낮게 지각되어 앞의 선행연구 결과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낮게 지각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우에는 목걸이 없이 귀걸이만 착용하거나,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작은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는 등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액세서리 착용이 요구된다.



<그림 17> 여성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그림 17>은 여성성 평가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로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가 목걸이를 착용한 경

우보다 여성성이 더 높게 지각되었다. 즉 목걸이를 하지 않은 채 작은 귀걸이만 한 모습이 가장 여성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큰 귀걸이만 한 경우도 여성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었다.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귀걸이의 크기나 착용여부에 따라 여성성 평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귀걸이도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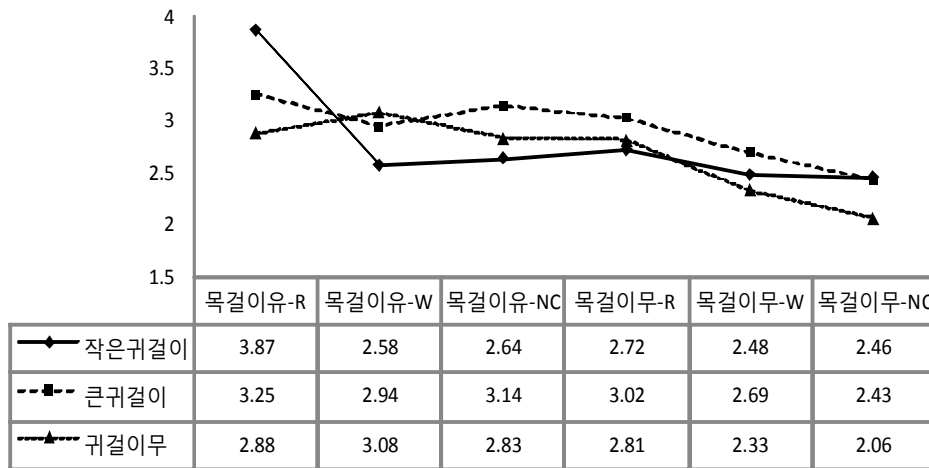
<그림 18> 매력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그림 18>은 매력성 평가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로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귀걸이의 형태나 착용여부에 영향 받지 않고 유사한 수준의 매력성을 나타내었다.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큰 귀걸이와 작은 귀걸이의 착용이 동일한 수준의 매력성을 나타내었으나, 목걸이와 귀걸이를 둘 다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매력성이 매우 낮게 지각되었다.

그러므로 목걸이 없이 작은 귀걸이만 착용한 모습은 가장 전문적이고 여성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귀걸이 없이 목걸이만 착용하였을 때는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평가되었다. 귀걸이와 목걸이를 모두 착용하지 않

은 여성은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이 매우 낮게 지각되었다.

개성, 매력성은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19>, <그림 2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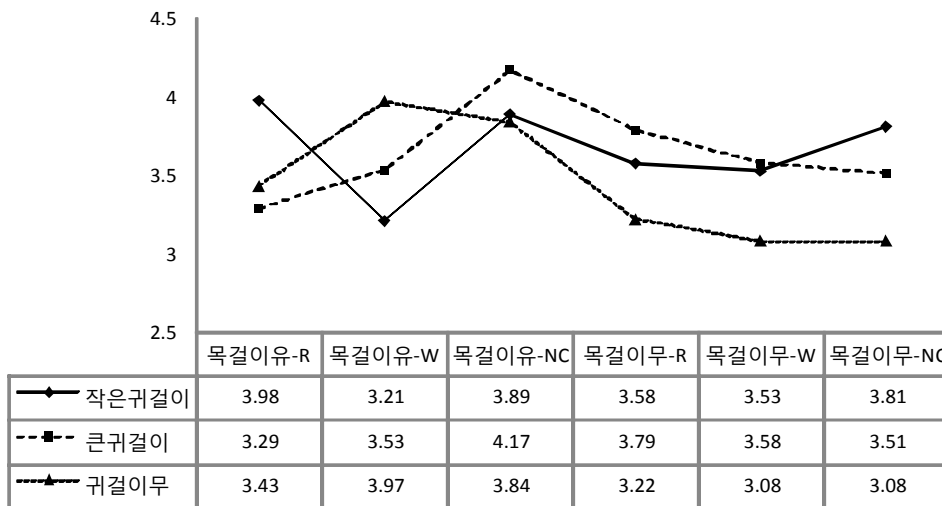
R: 빨강 코사지, W: 흰색 코사지, NC: 코사지 무

<그림 19> 개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그림 19>는 개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따른 상호작용형태로 목걸이 및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는 개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목걸이 및 큰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도 개성이 높았다. 즉 목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 작은 귀걸이를 했을 때가 큰 귀걸이를 했을 때보다 개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이는 같은 차원에 속한 단서들이 함께 존재하면, 한 단서의 단독효과는 각각 존재할 때보다 줄어든다는 Lennon과 Miller(1984~1985)의 실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목걸이 및 빨강 코사지는 작은 귀걸이와 같이 착용하였을 때는 개성이 매우 높게 지각되었으나, 큰 귀걸이와 같이 착용함으로써 그 효과가 감소하였다. <표 8>에서 목걸이, 큰 귀걸이, 빨강 코사지는 모두 개성이 매우 높게 지각된

독립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단서가 같이 있음으로써 단서의 특출성이 적어져 각각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성 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작은 목걸이와 같이 착용한 경우에는 목걸이와 빨강 코사지의 개성적인 이미지가 더욱 높게 지각되어 그 효과가 증가되었다. 따라서 모든 신체 외모 단서는 인상형성 시 똑같은 가중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가중치 평균모델을 지지한 결과였다 (강혜원 외, 2012). 목걸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큰 귀걸이, 작은 귀걸이, 귀걸이 비착용의 모든 경우에서 빨강 코사지, 흰색 코사지, 코사지 비착용의 순으로 개성이 점차적으로 낮게 지각되었다. 이것은 빨강 코사지가 강렬함을 상징하는 색채의 특질에 기인한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목걸이 및 귀걸이와 코사지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성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목걸이 및 귀걸이와 코사지 착용은 개성 요인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개성이 높게 지각된 단서들끼리의 조합은 오히려 개성 요인의 영향을 감소시키므로 다른 차원의 단서와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개성적인 이미지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R: 빨강 코사지, W: 흰색 코사지, NC: 코사지 무

<그림 20> 매력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그림 20>은 매력성 지각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로 목걸이 및 큰 귀걸이를 하고 코사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매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목걸이 및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도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목걸이, 작은 귀걸이, 흰색 코사지를 한 경우는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고,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지 않은 경우는 흰색 코사지를 하거나 코사지를 하지 않았을 때 매력성이 매우 낮게 지각되었다. 즉, 흰색 코사지만 착용한 경우는 액세서리를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력없고, 촌스러우며, 멋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4.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넥라인, 소매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변량원	<i>df</i>	선호도 <i>F</i>	
실루엣(A)	1	.01	
스커트 길이(B)	2	24.24**	
넥라인(C)	1	.11	
소매(D)	1	1.61	
A×B	2	.16	
A×C	1	.04	
A×D	1	.86	
B×C	2	.20	
B×D	2	.11	
C×D	1	.84	
A×B×C	2	.12	
A×B×D	2	.33	
A×C×D	1	.06	
B×C×D	2	.22	
A×B×C×D	2	.04	
집단 내 오차	658		
변인	속성	<i>N</i>	<i>M</i>
실루엣	A라인	340	3.50
	플레어	342	3.50
스커트 길이	미니	225	3.81a
	무릎길이	230	3.60b
	미디	227	3.09c
넥라인	라운드	343	3.52
	보트	339	3.49
소매	슬리브리스	338	3.56
	쇼트슬리브	344	3.45

** $p < .01$,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9>에서 선호도는 2개, 3개 및 4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다. 실루엣, 네크라인, 소매는 선호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스커트 길이는 선호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스커트 길이는 미니, 무릎길이, 미디의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는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난 이은령, 이경희(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반적으로 의복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선호도에 있어서 스커트 길이 이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다른 디자인 요소보다 스커트 길이가 선호도에 있어서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의 결과에 의하면, 귀걸이 착용은 선호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목걸이와 코사지 착용은 선호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목걸이의 각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목걸이를 하지 않은 모습이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보다 더 선호되었다. 코사지 별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이 흰색 코사지, 빨강 코사지 순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흰색 코사지나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보다 더 전문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표 8), 본 연구의 평가자가 여대생들이므로 여대생들은 전문적인 이미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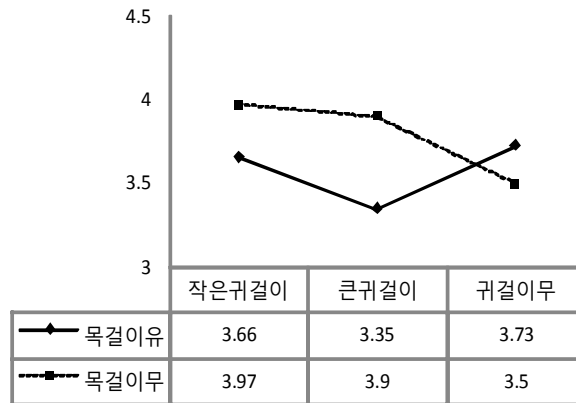
<표 10>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변량원		df	선호도 F
목걸이(A)		1	5.18*
귀걸이(B)		2	2.02
코사지(C)		2	3.73*
A×B		2	6.65**
A×C		2	1.41
B×C		4	.59
A×B×C		4	2.60*
집단 내 오차		592	
변인	속성	N	M
목걸이	유	270	3.59
	무	340	3.78
귀걸이	작은	194	3.82
	큰	209	3.67
	무	207	3.60
코사지	빨강	206	3.58b
	흰색	206	3.67ab
	무	198	3.84a

* $p < .05$, ** $p < .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10>에서 선호도는 목걸이와 귀걸이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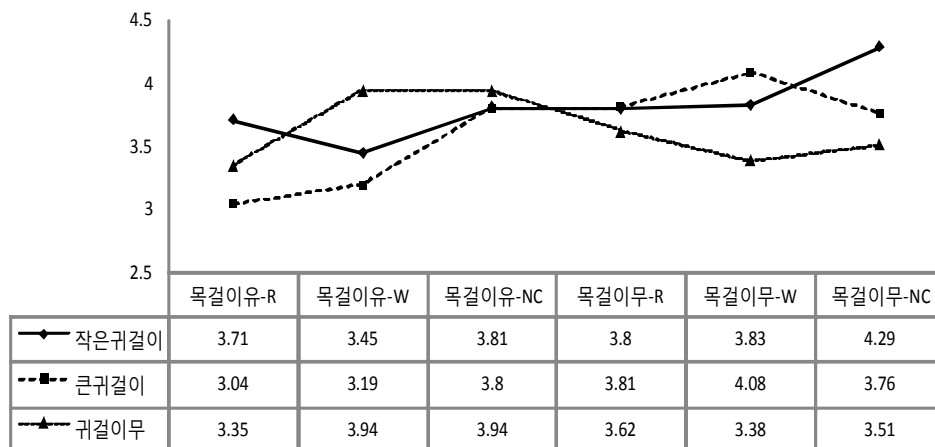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목걸이를 했을 때보다 목걸이를 하지 않았을 때 더 선호도가 높았다.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목걸이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목걸이를 했을 때 더 선호도가 높았다. 즉 목걸이와 귀걸이는 두 가지를 다 착용하는 것보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착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고 작은 귀걸이만 한 경우는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목걸이를 착용하고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선호도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이것은 목걸이와 큰 귀걸이는 둘 다 개성 요인이 가



<그림 21> 액세서리 선호도에 대한 목걸이와 귀걸이의 상호작용형태

장 높게 평가된 변인으로(표 8), 강렬하고 눈에 띄는 액세서리 두 가지를 함께 착용한 모습은 과한 것으로 인식되어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된다.

<표 9>에서 선호도는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3개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2>와 같다.



R: 빨강 코사지, W: 흰색 코사지, NC: 코사지

<그림 22> 액세서리 선호도에 대한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목걸이와 코사지는 착용하지 않고 작은 귀걸이만 착용한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목걸이는 하지 않은 채 큰 귀걸이와 흰색 코사지를 한 경우도 선호도가 높았으나 목걸이 및 큰 귀걸이와 흰색 코사지를 착용했을 때는 선호도가 낮았다. 목걸이 및 큰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했을 때는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목걸이 및 큰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는 3가지 모두 개성 요인이 가장 높게 평가된 독립변인으로(표 8), 개성이 강한 액세서리의 과도한 착용이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강렬하고 독특하며 눈에 띄는 개성 요인이 선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시사한다.

5.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

1)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 t -검증, Duncan의 다중범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검정 드레스의 네크라인에 따른 이미지 지각 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적은 편이었으므로, 실루엣, 스커트 길이, 소매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실루엣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는 개성, 여성성, 전문성, 현대성, 활동성 요인의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성 요인에서는 ‘눈에 띄는’과 ‘섹시한’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를 보면, ‘눈에 띄는’ 항목에서는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이 A라인 실루엣보다 눈에 띄는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며, ‘섹시한’ 항목에서는 A라인 실루엣이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보다 섹시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여성성 요인에서는 ‘상냥한’, ‘부드러운’, ‘따뜻한’, ‘낭만적인’, ‘여성적인’의 5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치를 보면,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이 A라인 실루엣보다 더 상냥하고, 부드럽고, 따뜻하며, 낭만적이고, 여성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전문성 요인에서는 ‘지성적인’, ‘전문직같은’, ‘이성적인’의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치를 보면, 3개 모든 항목에서 A라인 실루엣이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보다 지성적이고, 전문직 같으며, 이성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현대성 요인에서는 ‘세련된’, ‘모던한’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치를 보면, A라인이 플레어 스커트보다 세련되고 모던한 이미

<표 11>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 (N=682)

구성요소	항목	실루엣			스커트길이				슬리브			전체 M	순위
		A 라인	플레어	t	미니	무릎길이	미디	F	슬리브리스	쇼트	t		
개성	개성있는	2.22	2.24	-.14	2.40a	2.20ab	2.09b	3.56*	2.35	2.12	2.37*	2.23	21
	독특한	2.06	2.13	-.72	2.36a	1.93b	2.00b	8.67**	2.19	2.01	1.95	2.10	22
	강렬한	2.38	2.27	.96	2.51a	2.22b	2.25b	3.03*	2.43	2.23	1.88	2.33	20
	눈에 띄는	2.64	2.85	-1.97*	3.08a	2.62b	2.56b	9.20**	2.94	2.56	3.48**	2.75	18
	섹시한	2.55	2.32	2.07*	3.01a	2.32b	1.98c	32.65**	2.61	2.26	3.25**	2.43	19
여성성	상냥한	4.08	4.40	-2.87**	4.32	4.30	4.11	1.45	4.27	4.21	.51	4.24	5
	부드러운	3.53	4.01	-4.03**	3.86	3.84	3.62	1.69	3.80	3.74	.53	3.77	9
	따뜻한	3.67	3.90	-2.09*	3.74	3.85	3.77	.35	3.75	3.82	-.57	3.79	8
	낭만적인	3.22	3.59	-3.63**	3.40	3.46	3.37	.26	3.44	3.37	.66	3.41	14
	여성적인	4.94	5.13	-2.14*	5.09	5.11	4.91	1.99	5.05	5.02	.29	5.04	1
전문성	지성적인	4.84	4.64	2.11*	4.47b	4.95a	4.79a	8.98**	4.74	4.73	.11	4.74	2
	책임성있는	4.66	4.65	.16	4.40b	4.87a	4.70a	8.58**	4.64	4.68	-.43	4.66	3
	성공적인	4.03	3.86	1.81	3.92ab	4.10a	3.81b	3.37*	4.00	3.89	1.13	3.94	7
	전문직같은	4.20	3.82	3.07**	3.68b	4.24a	4.10a	7.10**	4.01	4.01	.07	4.01	6
	이성적인	4.35	4.12	2.25*	4.24	4.29	4.18	.41	4.24	4.23	.12	4.24	5
현대성	세련된	3.56	3.35	2.02*	3.74a	3.58a	3.05b	15.73**	3.55	3.37	1.68	3.46	13
	현대적인	3.49	3.32	1.41	4.02a	3.41b	2.78c	40.97**	3.54	3.26	2.39*	3.40	15
	모던한	4.48	4.22	2.39*	4.44a	4.48a	4.13b	4.20*	4.41	4.29	1.13	4.35	4
	도회적인	3.62	3.44	1.75	3.77a	3.57a	3.24b	8.91**	3.64	3.42	2.15*	3.53	11
활동성	활동적인	2.84	2.92	-.77	3.45a	2.78b	2.42c	31.34**	3.07	2.70	3.27**	2.88	16
	발랄한	2.61	2.91	-2.65**	3.37a	2.63b	2.29c	34.90**	2.90	2.63	2.44*	2.76	17
	자신감있는	3.71	3.69	.14	4.06a	3.72b	3.32c	15.76**	3.82	3.58	2.20*	3.70	10
	젊어 보이는	3.49	3.55	-.47	4.17a	3.54b	2.85c	46.77**	3.59	3.46	1.12	3.52	12

* $p < .05$, ** $p < .01$,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지로 지각되었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발랄한’의 1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이 A라인 실루엣보다 발랄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스커트 길이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는 여성성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성, 전문성, 현대성, 활동성 요인의 항목 중 17개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성 요인에서는 ‘개성있는’, ‘독특한’, ‘강렬한’, ‘눈에 띄는’, ‘섹시한’의 5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개성있는’ 항목에서는 미니 스커트가 가장 개성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이 무릎길이 스커트, 미디 스커트 순으로 평가되었다. ‘독특한’, ‘강렬한’, ‘눈에 띄는’ 항목에서는 미니 스커트가 가장 독특하고, 강렬하며, 눈에 띄는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며, 무릎길이 스커트와 미디 스커트는 평범하고, 무난하며, 눈에 띄지 않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섹시한’ 항목에서는 미니 스커트가 가장 섹시한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그 다음이 무릎길이 스커트였으며, 미디 스커트가 가장 섹시하지 않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전문성 요인에서는 ‘지성적인’, ‘책임성있는’, ‘성공적인’, ‘전문직같은’의 4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치를 보면 ‘지성적인’, ‘책임성있는’, ‘전문직같은’ 항목에서는 무릎길이 스커트와 미디 스커트가 가장 지성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전문직같은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미니 스커트가 가장 전문직 같지 않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성공적인’ 항목에서는 무릎길이 스커트가 가장 성공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그 다음이 미니 스커트, 미디 스커트 순으로 평가되었다.

현대성 요인에서는 ‘세련된’, ‘현대적인’, ‘모던한’, ‘도회적인’의 모든 4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세련된’, ‘모던한’, ‘도회적인’ 항목에서는 미니 스커트와 무릎길이 스커트가 가장 세련되고, 모던하며, 도회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미디 스커트가 가장 촌스럽고, 모던하지 않으며, 도회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현대적인’ 항목에서는 미니 스커트가 가장 현대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그 다음이 무릎길이 스커트였으며,

미디 스커트는 가장 고전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활동적인’, ‘발랄한’, ‘자신감있는’, ‘젊어 보이는’의 모든 4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개의 모든 항목에서 미디 스커트가 가장 활동적이고, 발랄하며, 자신감 있고, 젊어 보이는 이미지로 지각되었고, 그 다음이 무릎길이 스커트였으며, 미디 스커트는 가장 비활동적이고, 점잖으며, 자신감 없고, 성숙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는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어려 보이고 발랄한 것으로 나타난 김경희, 이정순(2009)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한 것이었다.

소매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는 여성성, 전문성 요인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개성, 현대성, 활동성 요인의 항목 중 8개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성 요인에서는 ‘개성있는’, ‘눈에 띄는’과 ‘섹시한’의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슬리브리스 드레스가 쇼트 슬리브보다 개성 있고, 눈에 띄며, 섹시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현대성 요인에서는 ‘현대적인’, ‘도회적인’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슬리브리스 드레스가 쇼트 슬리브보다 현대적이고 도회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활동성 요인에서는 ‘활동적인’, ‘발랄한’, ‘자신감있는’의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슬리브리스 드레스가 쇼트 슬리브보다 더 활동적이고, 발랄하며, 자신감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슬리브리스 드레스는 쇼트 슬리브 드레스보다 8개 항목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즉 슬리브리스 드레스는 쇼트 슬리브 드레스보다 개성 있고, 눈에 띄며, 섹시하고, 현대적이며, 도회적이고, 활동적이며, 발랄하고, 자신감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전체 순위를 보면,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는 여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책임성 있고, 모던하며, 상냥하고, 이성적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검정색이 진중하고 모던하며 현대적인 이미지를 지닌다고 한 윤지윤, 김영인(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고, 검정 의복의 이미지가 여성성, 위엄성, 모던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이정미, 조진숙(2007)의 연구와 일부 일치하였다.

2)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귀걸이, 코사지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요인은 유의적인 차이가 적은 편이었으므로 제외하고, 목걸이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목걸이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는 전문성, 개성, 여성성, 매력성, 귀엽성 요인의 항목 중 13개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성 요인에서는 ‘성공적인’, ‘자신감있는’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것보다 성공적이고 자신감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개성 요인에서는 ‘강렬한’, ‘독특한’, ‘섹시한’, ‘눈에 띄는’의 4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를 보면,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강렬하고, 독특하며, 섹시하고, 눈에 띄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여성성 요인에서는 ‘부드러운’, ‘따뜻한’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치를 보면,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목걸이를 착용한

<표 12> 목걸이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
(N=610)

구성 요소	항목	목걸이			전체 M	순위
		유	무	t		
전문성	지성적인	4.77	4.87	.99	4.82	2
	책임성있는	4.67	4.85	-1.84	4.77	3
	성공적인	4.60	4.24	3.41**	4.40	5
	이성적인	4.21	4.25	-.32	4.23	9
	모던한	4.13	4.34	-1.78	4.25	8
	전문직같은	4.36	4.32	.31	4.34	7
	자신감있는	4.63	4.20	3.67**	4.39	6
개성	강렬한	3.18	2.49	5.92**	2.79	21
	독특한	2.74	2.26	4.31**	2.47	23
	섹시한	2.68	2.33	2.96**	2.49	24
	개성있는	2.73	2.51	1.94	2.61	22
	눈에 띄는	3.77	3.23	4.69**	3.47	15
여성성	상냥한	4.42	4.61	-1.75	4.52	4
	여성적인	5.47	5.36	1.21	5.41	1
	낭만적인	3.88	3.74	1.34	3.80	14
	부드러운	3.82	4.20	-3.20**	4.03	10
	따뜻한	3.80	4.18	-3.54**	4.01	11
매력성	매력있는	3.56	3.31	2.20*	3.42	16
	세련된	4.01	3.74	2.23*	3.86	12
	도회적인	3.91	3.76	1.28	3.82	13
	멋있는	3.34	3.05	2.57*	3.18	18
귀염성	젊어 보이는	2.94	3.62	-5.63**	3.32	17
	귀여운	2.70	3.22	-4.42**	2.99	19
	발랄한	2.89	2.96	-.67	2.93	20

* $p < .05$, ** $p < .01$

경우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매력성 요인에서는 ‘매력있는’, ‘세련된’, ‘멋있는’의 3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치를 보면,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매력있고 세련되며 멋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귀염성 요인에서는 ‘젊어 보이는’, ‘귀여운’의 2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치를 보면,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목걸이를 착용

한 경우보다 젊어 보이고 귀여운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검정 드레스에 액세서리를 착용한 여성 이미지의 순위를 보면 여성적, 지성적이며, 책임성 있고, 상냥하며, 성공적인 이미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표 11>의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였으나 검정 드레스만 착용한 여성은 모던한 이미지가 높고, 검정 드레스와 함께 액세서리를 착용한 여성은 성공적인 이미지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6.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넥라인, 소매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

변량원	<i>df</i>	연령 <i>F</i>	소득 <i>F</i>	
실루엣(A)	1	9.70**	.43	
스커트 길이(B)	2	45.67**	.89	
넥라인(C)	1	1.97	.02	
소매(D)	1	.13	4.21*	
A×B	2	.68	1.48	
A×C	1	.03	.61	
A×D	1	1.10	.61	
B×C	2	.27	.08	
B×D	2	2.36	.19	
C×D	1	.41	.73	
A×B×C	2	1.03	.14	
A×B×D	2	.53	.38	
A×C×D	1	.36	.58	
B×C×D	2	.70	1.14	
A×B×C×D	2	.61	.02	
집단 내 오차	658			
변인	속성	<i>N</i>	<i>M</i>	<i>M</i>
실루엣	A라인	340	25.66	2.10
	플레어	342	24.97	2.04
스커트 길이	미니	225	24.16c	2.01
	무릎길이	230	25.02b	2.14
	미디	227	26.74a	2.06
넥라인	라운드	343	25.15	2.06
	보트	339	25.47	2.08
소매	슬리브리스	338	25.27	2.15
	쇼트슬리브	344	25.35	1.99

* $p < .05$, ** $p < .01$, a, b, c: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13>에서 연령 및 소득 추론은 2개, 3개, 4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 추론은 넥라인과 소매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실루엣과 스커트 길이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실루엣은 연령 추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플레어 스커트 착용자는 25.0세로 A라인 스커트 착용자인 25.7세보다 더 젊게 추론되었다. 이는 스커트 폭이 넓은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가 스커트 폭이 좁은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보다 더 성숙해 보이는 인상으로 지각된 이용휘, 강경자(1997)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였으나, 스커트 폭이 넓은 원피스 드레스의 착용자는 스커트 폭이 좁은 원피스 드레스의 착용자보다 어려보이는 것으로 지각된 최수경, 강경자(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스커트 길이는 연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미니 스커트 착용자는 24.2세로 가장 젊게 추론되었고, 그 다음으로 무릎길이 스커트 착용자는 25.0세로 추론 되었으며, 미디 길이 스커트 착용자가 26.7세로 가장 성숙하게 평가되었다. 즉 스커트 길이가 짧을수록 더 젊게 추론되었으며, 이는 스커트 길이가 길수록 성숙한 것으로 나타난 이은령, 이경희(1996)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또한 하의길이가 짧을수록 젊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김경희, 이정순(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소득 추론은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넥라인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소매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슬리브리스 드레스 착용자가 쇼트 슬리브 드레스 착용자보다 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쇼트 슬리브가 일상적이고 평범한 느낌을 주는 슬리브이므로 슬리브 드레스가 쇼트 슬리브 드레스보다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소득이 높게 추론 된 것으로 해석된다.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

변량원		df	연령 <i>F</i>	소득 <i>F</i>
목걸이(A)		1	45.47**	8.94**
귀걸이(B)		2	6.63**	2.05
코사지(C)		2	.91	1.13
A×B		2	.49	1.29
A×C		2	.98	.54
B×C		4	2.43**	.31
A×B×C		4	1.38	.67
집단 내 오차		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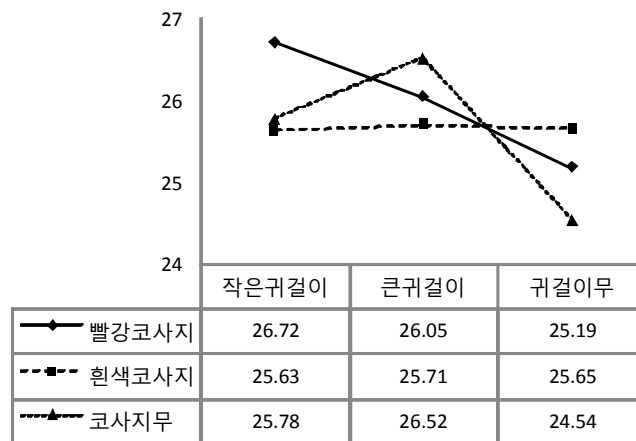
변인	속성	<i>N</i>	<i>M</i>	<i>M</i>
목걸이	유	270	26.66	2.63
	무	340	25.01	2.35
귀걸이	작은	194	26.04a	2.53
	큰	209	26.08a	2.58
	무	207	25.12b	2.33
코사지	빨강	206	25.97	2.43
	흰색	206	25.67	2.57
	무	198	25.58	2.43

***p*<.01, a,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표 14>의 결과를 보면, 연령 추론은 코사지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목걸이와 귀걸이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5.0세로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인 26.7세보다 1.7세 더 젊게 추론되었다.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약 25.1세로 작은 귀걸이(26.0세)나 큰 귀걸이(26.1세)를 착용한 경우보다 더 젊게 평가되었다. 소득 추론은 귀걸이와 코사지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목걸이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치를 비교하여 보면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가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소득이 더 높게 추론되었다. 이것은 목걸이가 능력요인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난 이명희, 강승희(1998)

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또한 목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착용은 예로부터 경제적 부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왔으므로(오희선, 2005) 소득이 더 높게 추론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3>에서 연령 추론은 귀걸이와 코사지 착용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그 형태는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연령 추론에 대한 귀걸이와 코사지의 상호작용형태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26.7세로 연령이 가장 높게 추론되었고, 귀걸이와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4.5세로 연령이 가장 낮게 추론되었다. 흰색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귀걸이 착용유무에 상관없이 연령이 약 25.7세 수준으로 비슷하게 추론되었다.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코사지 비착용, 빨강 코사지, 흰색 코사지 순으로 연령이 높게 평가되었고,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흰색 코사지, 빨강 코사지, 코사지 비착용의 순으로 연령이 점차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7.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검정 드레스 착용 이미지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5개의 검정 드레스 착용 이미지 지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검정 드레스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차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i>beta</i>	<i>t</i>
개성	.10	2.95**
여성성	.31	11.02**
전문성	.17	5.71**
현대성	.30	8.53**
활동성	.23	6.46**
R^2	$R^2 = .577$ $F = 184.70^{**}$	

** $p < .01$

<표 15>에서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선호도에는 여성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그 다음 현대성, 활동성, 전문성, 개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5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7.7%였다. 즉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모습이 여성적이고, 현대적이며, 활동적, 전문적이며, 개성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호도 평가를 종속변인으로, 5개의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 지각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액세서리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차원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독립변인	beta	t
전문성	.21	5.9**
개성	-.09	-2.4*
여성성	.18	5.45**
매력성	.48	11.13**
귀염성	.22	6.71**
R^2	$R^2 = .554$ $F = 149.81**$	

* $p < .05$, ** $p < .01$

<표 16>에서 액세서리 착용자의 선호도에는 매력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그 다음 귀염성, 전문성, 여성성, 개성(-)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5개 변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55.4%였다. 즉 액세서리 착용자의 모습이 매력적이고 귀여우며 전문적, 여성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 귀염성이 액세서리 착용 선호도에 비교적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귀걸이와 같은 액세서리 착용빈도가 높은 여성은 발달하고 젊어 보이는 의복 이미지를 추구한다는 최수경(201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개성 요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개성이 낮을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는 액세서리 사용에 있어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소박하고 단조로운 장신구를 사용하여 가능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을 보이려고 했다는 오희선(2005)의 내용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도 강렬하고 눈에 띄는 액세서리 착용으로 개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성향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여성을 지각대상자로 하여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및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지각대상자의 연령과 소득 수준의 차이를 알아보며, 선호도에 영향을 주는 이미지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의 변화가 여성의 이미지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정 드레스를 착용한 여성의 전신 자극물 24개와 검정 드레스(라운드 넥라인, 쇼트 슬리브)와 액세서리를 착용한 여성의 상반신 자극물 18개로 총 42개의 칼라 사진을 자극물로 사용하였다. 의복단서의 변인은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실루엣, 스커트길이, 넥라인, 소매)와 액세서리(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종류, 크기, 색과 착용여부에 따라 변화시켰다. 조사대상자는 서울 지역의 여대생 646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의 요인분석

검정 드레스 착용 이미지의 차원은 개성, 여성성, 전문성, 현대성, 활동성의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의 차원은 전문성, 개성, 여성성, 매력성, 귀염성의 5가지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2.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첫째, 실루엣은 여성성, 전문성, 현대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A라인 스커트 실루엣은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보다 더 전문적이고 모던하게 지각되었고,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은 A라인 스커트 실루엣보다 더 여성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스커트 길이는 개성, 전문성, 현대성, 활동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미니 스커트는 가장 개성적이고 모던하며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고, 무릎길이 스커트는 가장 전문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네크라인은 활동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라운드 네크라인 드레스가 보트 네크라인 드레스보다 더 활동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소매는 개성, 현대성, 활동성 차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슬리브리스 드레스가 쇼트 슬리브 드레스보다 더 개성적이고 모던하며 활동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둘째,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개성 요인에서 실루엣과 네크라인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A라인 스커트 실루엣인 경우에는 보트 네크라인이 조합되었을 때, 플레어 스커트 실루엣인 경우에는 라운드 네크라인이 조합되었을 때 개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3.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첫째, 목걸이 착용은 개성, 매력성, 귀엽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개성과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으나 귀엽성은 낮게 지각되었다. 귀걸이는 전문성, 개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착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전문성이 높게 지각되었고,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는 작은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귀걸이가 없는 경우보다 더 개성적인 것으로 지각되었다. 코사지는 전문성, 개성 요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보다 전문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고,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흰색 코사지를 착용하거나 코사지가 없는 경우보다 개성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은 목걸이와 귀걸이 착용에 따른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에는 귀걸이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고 귀걸이를 착용했을 때 전

문성, 여성성, 매력성이 높게 지각되었다. 반면, 목걸이와 귀걸이를 둘 다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전문성, 여성성, 매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다.

셋째, 개성과 매력성은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3개의 독립변인에 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목걸이 및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개성, 매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고, 목걸이 및 큰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한 경우 개성은 높게 지각되었으나 매력성은 낮게 평가되었다. 목걸이 및 큰 귀걸이를 하고 코사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매력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코사지의 색상이나 착용유무에 상관없이 매력성이 매우 낮았다.

4.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

첫째, 검정 드레스의 디자인 요소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스커트 길이에 있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스커트 길이의 선호도는 미니>무릎 길이>미디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귀걸이 착용은 선호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목걸이와 코사지 착용은 선호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목걸이는 비착용, 착용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고, 코사지는 비착용, 흰색 코사지, 빨강 코사지 순으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2개 독립변인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목걸이를 한 경우 큰 귀걸이를 한 모습보다 작은 귀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하지 않은 모습이 더 선호되었고, 목걸이와 큰 귀걸이를 함께 착용한 모습은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고 귀걸이만 착용한 모습은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3개 독립변인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목걸이와 코사지는 착용하지 않고 작은 귀걸이만 착용한 경우 선호도가 가장 높았고, 목걸이 및

큰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모습은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5.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

첫째, 검정 드레스의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넥라인, 소매에 따른 이미지 항목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루엣에 있어서 A라인 드레스는 플레어 스커트 드레스보다 더 섹시하고 지성적이며, 전문직 같고 이성적이며, 세련되고 모던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플레어 스커트 드레스는 A라인 드레스보다 더 눈에 띄고 상냥하며, 부드럽고 따뜻하며, 낭만적이고 여성적이며 발랄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스커트 길이는 미니 스커트가 가장 개성 있고 독특하며, 강렬하고 눈에 띄며, 섹시하고 현대적이며, 모던하고 도회적이며, 활동적이고 발랄하며, 자신감 있고 젊어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릎길이 스커트는 가장 지성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성공적이고 전문직 같으며 모던한 것으로 지각되었다. 미디 스커트는 무릎길이 스커트와 함께 지성적이고 책임성 있으며 전문직같은 이미지가 높게 평가되었다. 소매에 있어서 슬리브리스 드레스는 쇼트 슬리브 드레스보다 더 개성 있고 눈에 띄며, 섹시하고 현대적이며, 도회적이고 활동적이며, 발랄하고 자신감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전체 순위를 보면,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는 여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책임성 있고, 모던하며, 상냥하고, 이성적인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목걸이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항목별 평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목걸이를 한 모습은 목걸이를 하지 않은 모습보다 더 성공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강렬하고 독특하며, 섹시하고 눈에 띄며, 매력 있고 세련되며 멋있는 이미지로 지각되었으나, 딱딱하고, 차가우며, 성숙해 보이고, 귀엽지 않은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전체 순위를 보면, 목걸이 착용자의 이미지는 여성적이고, 지성적이며, 책임성 있고, 상냥하며, 성공적인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

첫째, 검정 드레스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연령 추론은 실루엣과 스커트 길이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플레어 스커트 착용자(25.0세)는 A라인 스커트 착용자(25.7세)보다 더 젊게 추론되었다. 스커트 길이에 있어서는 미디 스커트 착용자가 26.7세로 가장 성숙하게 평가되었고, 그 다음 무릎길이 스커트 착용자는 25.0세로 추론되었으며, 미니 스커트 착용자는 24.2세로 가장 젊게 추론되었다. 소득 추론은 소매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슬리브리스 드레스 착용자가 쇼트 슬리브 드레스 착용자보다 소득이 높게 추론되었다.

둘째,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연령 및 소득 추론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25.0세)는 목걸이를 착용한 경우(26.7세)보다 더 젊게 추론되었다. 귀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25.1세)는 작은 귀걸이(26.0세)나 큰 귀걸이를 착용한 경우(26.1세)보다 더 젊게 평가되었다. 소득 추론은 목걸이 착용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목걸이를 착용한 모습이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보다 소득이 더 높게 추론되었다. 상호작용 형태를 보면 작은 귀걸이와 빨강 코사지를 착용한 경우는 26.7세로 연령이 가장 높게 추론되었고 귀걸이와 코사지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24.5세로 연령이 가장 낮게 지각되었다.

7.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 이미지 요인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는 여성적이고 모던하며, 활동적이고 전문적이며 개성이 높을수록 지각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액세서리 착용자의 이미지는 매력적이고 귀여우며, 전문적이고 여성성이 높을수록 지각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한 반면, 개성은 낮을수록 지각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하였다. 특히 검정 드레스의 착용자의 선호도는 여성성이, 액세서리 착용자의 선호도는 매력성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네크라인, 소매와 같은 의복 디자인 요소는 검정 드레스를 착용한 여성의 전체적인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의복 단서로 나타났는데, 특히 스커트 길이는 다른 의복 디자인 요소보다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됨을 시사하였다.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와 같은 액세서리 착용 또한 검정 드레스를 착용한 여성의 이미지 지각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외모 단서로 나타났다.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평가는 검정 드레스 디자인 요소에 따른 이미지 평가보다 더욱 다양하게 평가되었으며, 이것은 액세서리에 의하여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효과가 높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따라서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네크라인, 소매와 같은 의복 디자인 요소와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와 같은 액세서리 착용은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 과정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는 외모 단서로 그 디자인과 색의 변화에 따라서도 다양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들 단서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서 소비자가 검정 드레스를 구입할 때 추구하는 이미지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검정 드레스 착용자의 의복단서로 디자인 요소와 액세서리의 각 변인을 2~3가지로 제한시켜 이미지 지각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 이외에 의복 소재와 디자인 라인의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액세서리, 지각대상자의 얼굴형이나 피부색, 헤어스타일 등에 의해서도 효과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에 따른 이미지 평가의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자극물 제작에 있어 지각대상자를 20대 여성 모델로 한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연령대에 일반화 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폭 넓은 지각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른 이미지 지각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검정 드레스 이미지 지각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 시기가 하나의 계절에 한정되었으므로 각 디자인의 이미지 지각 결과를 사계절에 일반화 시키는 데는 제한이 있다.

넷째, 연구대상자가 서울 지역으로 한정되었고, 연구대상자의 표집을 임의표집 하였으므로 전체 여성에게 확대하여 일반화 하는 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의복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같은 의복과 액세서리 착용에 대한 이미지 지각은 지각자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지각자 연령 또는 성별에 따른 검정 드레스와 액세서리 착용의 이미지 지각과 선호도의 차이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원, 이금실, 고애란, 정미실, 남미우, 김양진 (2012). *의상사회심리학 (제 3판)*. 파주: 교문사, pp.311, 319.
- 고순영, 박문희 (2010). 가브리엘 샤넬과 요지 야마모토의 무채색 복식에 나타난 디자인 특성과 패션 이미지 연구. *복식문화연구*, 18(5), pp.789-808.
- 곽혜선, 금기숙 (1998). 흑색의 조형성과 상징성에 관한 연구. *복식*, 37, pp.231-252.
- 권민정, 어미경, 서미아 (2012). 하이 웨이스트 스커트의 허리선 높이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차이. *복식문화연구*, 20(3), pp.309-318.
- 김경희, 이정순 (2009). 플리츠 스커트의 플리츠 수와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효과. *패션비즈니스*, 13(5), pp.81-92.
- 김기례, 채금석 (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블랙드레스의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8), pp.1076-1087.
- 김명기 (2010). 웨딩헤드드레스, 헤어스타일, 네크라인에 따른 이미지 지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p.51-57, 75.
- 김선미 (2008). 물방울 크기와 배색방법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 지각.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선영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리틀 블랙드레스의 미적 특성: 2000년 이후를 중심으로. *복식*, 57(4), pp.18-29.
- 김수영, 이연희 (2010). 현대 패션 액세서리에 나타난 키치(Kitsch) 특성의 유희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1, pp.140-143.
- 김여원, 최종명 (2010). 블랙컬러 패션소재에 대한 색채감성과 선호도. *감성*

- 과학*, 13(2), pp.337-346.
- 김영룡 (2006). 여성의 웨딩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드레스네크라인 변화가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 김영인, 김은경, 김지영, 김혜수, 문영애, 이윤주, 이지현, 추선형 (2009). *패션의 색채언어*. 파주: 교문사, pp.104-112.
- 김영인, 문영애, 한소원 (2000). 한국 성인남녀의 의복 선호색. *한국의류학회지*, 24(7), pp.1225-1151.
- 김영자 (1998). *복식미학의 이해*. 서울: 경춘사, p.91.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과 색상·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 pp.395-406.
- 김일분, 유태순 (1999). 의복이미지 유형과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 *복식*, 45, pp.103-119.
- 김태은, 정성지, 김동건 (2011). 액세서리 쇼핑성향이 유통업태별 구매빈도, 상품선택 기준중요도 및 정보원 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149.
- 김혜경 (2008). *패션트렌드와 이미지*. 서울: 교문사. p.4, pp.232-237.
- 김효숙, 최창석, 이은실 (2003). 의복스타일과 색이 신체이미지지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pp.135-148.
- 남미우, 조정미 (1997).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의 수도복과 머리모양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4), pp.757-768.
- 류숙희, 최재란, 박종희 (2000). 의복색채에 의한 시각적 평가: 무채색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과학논집*, 25, pp.105-117.
- 문남원, 김옥진 (1997). 얼굴유형과 의복 네크라인과의 조화 연구. *복식*, 35, pp.305-323.
- 문혜정, 김민자 (1998). 서양복식에 나타난 김정색의 이미지: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를 중심으로. *복식*, 41, pp.207-223.

- 박민아, 고현진 (2013). 레드 카펫 패션 스타일: 2000~2012년 아카데미 시상식과 그래미 시상식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63(2), pp.14-28.
- 박정열, 허태균 (2006). 인상형성에 있어 사회적 범주 정보(우리-남)와 성격 특성 정보(따뜻한-차가운)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2(4), pp.55-75.
- 박종희 (2003). 체형과 신체 만족도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의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 중년여성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박종희, 최재란, 류숙희 (2000). 4가지 무채색 의복의 형태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한국의류학회지*, 24(8), pp.1177-1186.
- 박혜원, 김여숙 (2001). 리틀 블랙 드레스의 계보를 통한 미적 특성 연구. *패션비즈니스*, 5(2), pp.1-14.
- 배수정, 현선희, 백정현, 오현아, 정경희, 김은실, 천지영, 윤보연, 최지은 (2008). *현대패션과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수학사, p.296.
- 백진주, 박천호, 곽병화 (1995). 우리나라 꽃장식의 화료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화훼연구회지*, 4(2), PP.63-72.
- 신주동, 최종명 (2008). 여대생의 신체 만족도와 이미지에 따른 외모관리행동과 장신구 착용. *복식문화연구*, 16(2), pp.305-318.
- 안동연 (2013). *올 어바웃 주얼리(All About Jewelry)*. 서울: 대원사, pp.106-108. p.229.
- 오종은 (1995). 신세대의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54.
- 오희선 (2005). *재미있는 패션 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pp.49-50, 85, 181.
- 유금화 (2001). 여성 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유성우, 김경식, 간호섭 (2012). *패션디자인*. 서울: 수학사 p.66.
- 윤성원 (2012). *잇 주얼리(It Jewelry)*. 서울: 웅진씽크빅, pp.128-129.

- 윤영애 (2005). 액세서리에 따른 이미지 지각의 차이: 귀걸이 재료와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뷰티학회지*, 3(3), pp.1-10.
- 윤지윤, 김영인 (2005). 무채색에 의해 전달되는 패션디자인의 이미지. *복식*, 55(3), pp.122-135.
- 이경림, 박숙현(2006). 의복의 조형요소에 따른 모던이미지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30(8), pp.1222-1233.
- 이경희 (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pp.47-52.
- 이경희, 이은령 (2011). *패션 디자인 플러스 발상*. 서울: 교문사, pp.92-93.
- 이덕희, 이경희(1994) 의복형태와 디테일에 의한 표면이미지의 시각적 평가, *한국의류학회지*, 18(5), pp.646-660.
- 이명희 (2006). 액세서리 착용이 여성의 전문성 및 매력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pp.127-138.
-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8), pp.1111-1121.
- 이명희, 김미영 (2003). 영향 변인에 따른 색채 선호도와 의복색 소유도의 차이: 유행 몰입도, 연령, 신체 치수 및 신체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27(2), pp.188-199.
- 이명희, 송원영 (2011). 안경, 귀걸이, 헤어 길이와 의복 색이 20대 여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9(6), pp.1221-1234.
- 이미연 (1999). 디자인 요소에 따른 웨딩드레스의 이미지 지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pp.151-153.
- 이미정, 김준범, 이인자 (1997). 의복디자인 요소 변화에 의한 착시현상이 얼굴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1(8), pp.1287-1296.

- 이소라, 김재숙 (2008). 의복의 색과 문양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2(7), pp.1160-1168.
- 이용휘, 강경자 (1997). 원피스 드레스의 소매와 스커트 폭, 길이 변화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1(8), pp.1060-1071.
- 이영미, 서미아 (1998). 네크라인과 헤어스타일이 얼굴 이미지 및 형태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6(4), pp.13-25.
- 이은령, 이경희 (1996). 실루엣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X-line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4), pp.631-646.
- 이은희, 전경란 (2001). 대학생의 의복행동과 장신구 착용에 관한 연구: K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지*, 10(1), pp.113-126.
- 이인자, 이경희, 신호정 (2012). *의상심리*. 파주: 교문사, pp.55, 67.
- 이정미, 조진숙 (2006).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 연구. *복식문화연구*, 14(2), pp.247-259.
- 이정미, 조진숙 (2007). 현대 여성의 검은색 의상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5(1), pp.113-126.
- 이정순, 김정미 (2008). 미니스커트의 실루엣과 길이변화에 따른 시각적 평가. *패션비즈니스*, 12(4), pp.143-157.
- 이정순, 한경희 (2010). 플레어 스커트의 플레어 양과 스커트 길이 변화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패션비즈니스*, 14(2), pp.127-137.
- 이주현, 강혜원 (1995).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2보):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6), pp.984-994.
- 이주현, 조궁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1보): 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5), pp.747-764.
- 이지현 (1993). 남성 캐주얼웨어의 칼라형태와 인상형성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이철웅, 김일민, 조세홍 (2009). 한국 표준 얼굴 데이터를 적용한 3D 가상 얼굴 성형 제작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멀티미디어학회*, 12(5), pp.737-744.
- 이혜숙, 김재숙 (1996). 의복 디자인요소의 이미지 지각에 대한 연구: 색, 무늬를 중심으로 한 심층면접. *복식문화연구*, 4(3), pp.349-359.
- 정수진, 최수경 (2009). 귀걸이, 넥라인, 헤어스타일의 코디네이션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지*, 18(2), pp.535-545.
- 정해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의류학회지*, 28(3/4), pp.460-471.
- 조기년 (2004). 직장여성의 외적 Self Image Making 인식 정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pp.17-23.
- 조진아, 강근영, 이현주, 전연숙, 송승연 (2002). *토탈 코디네이션*. 서울: 훈민사, pp.133-138.
- 조필교, 정혜민 (1998). *패션디자인과 색채*. 서울: 전원문화사, pp.79-81.
- 최경원, 김세나, 유재부 (2005). *World fashion designer story*. 서울: 패션인사이트, p.31.
- 최수경 (2010).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추구이미지에 따른 성인여성의 액세서리 착용 및 화장 정도.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1), pp.336-344.
- 최수경, 강경자 (2004). 무채색 톤과 스커트 폭, 길이가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색채학회지*, 18(2), pp.55-65.
- 최정, 이경희 (1996). Computer Simulation을 이용한 의복의 착시효과와 이미지 연구: Collar와 Sleeve의 조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5), pp.915-929.
- 최종석, 방선영, 우남교, 김지수, 장국진 (1997). 한국인 색채 감성척도의 개발. 서울: (주)아이 알 아이, p.3.
- 한명숙 (2004). 남·여 대학생의 두발, 신발, 장신구의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11),

pp.1401-1414.

현성용, 김교현, 김마리혜, 김아영, 김현택, 박동건,성한기, 유태용, 윤병수, 이봉건, 이순묵, 이영호, 이재호, 이주일, 진영선, 채규만, 한관희, 황상민 (2013). *현대 심리학의 이해 (제2판)*. 서울: 학지사, pp.122, 430.

Arbetter, L. (2003). *Secrets of style*. New York: Melcher Media, pp.6, 130-135.

Armstrong, H. J. (2000). *Patternmaking for fashion design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pp.234, 316.

Asch, S. G. (1946). Forming impres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3), pp.258-290.

Birren, F. (2012). *Color psychology*. 김화중 역. *색채심리*. 서울: 동국출판사, p.183-184.

Condra, J. (2008). The Greenwood encyclopedia of clothing through world history. Vol.2, Westport CT: Greenwood Press, p.158.

Cumming, V., Cunnington, C. W., & Cunnington, P. E. (2010). *The dictionary of fashion history*. New York: Berg, pp.17, 55.

Damhorst, M. L. (1990). In search of a common thread: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ed through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8(2), pp.1-12.

Damhorst, M. L., & Reeds, J. A. P. (1986). Clothing color value and facial expression: Effects on evaluations of female job applica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4(1), pp.89-98.

Davis, M. L. (1996). *Visual design in dress (3rd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pp.86, 139, 144-145.

Demeester, L. (2012). *Fashion icons: Fashion trends throughout the*

- centuries*. Uitgeverij, NV: Lannoo, p.121.
- Francis, S. K., & Evans, P. K. (1987). Effects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personal coloring of model on person perception. *Perception & Motor Skills*, 64(2), pp.383-390.
- Frank, M. G., & Gilovick, T. (1988). The dark side of self and social perception: black uniforms and aggression in professional spor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pp.74-85.
- Gerval, O. (2008). *Fashion: Concept to catwalk*. London: A & C Black Publishers, p.36.
- Gibbins, K., & Coney, J. R. (1981). Meaning of physical dimension of women's clothing. *Perceptual and Motor Skills*, pp.720-722.
- Harvey, J. (1996). *Men in black*.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23, 41.
- Hill, D. D. (2011). *History of world costume and fash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p.630.
- Hollander, A. (1993). *Seeing through clothes*.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365-366.
- Horn, M. J., & Gurel, L. M. (1981). *The second skin: An interdisciplinary study of clothing (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p.159.
- Jernigan, M. H., & Easterling, C. R. (1997). *Fasion Merchandising & Marketing*. 임숙자, 류은정, 이승희, 이주은, 최성주 역. 서울: 교문사, pp.23-24.
- Kaiser, S. B.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 (2nd ed. revised)*.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5.

- Lake, L. A. (2009). *Consumer behavior for dummies*. Hoboken, NJ: Wiley Publishing, Inc., p.85.
- Laver, J. (2002). *Costume & fashion: A concise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Ltd., pp.282, 293.
- Lennon, S. J., & Miller, F. G. (1984-85). Attire, physical appearance, and first impressions: More is l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3(1), pp.1-8.
- Ludot, D. (2001). *The little black dress: Vintage treasure*. New York: Assouline, pp.7, 76.
- Mendes, V. (1999). *Dressed in black*.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pp.7
- Miller, F. G. (1982). Clothing and physical impairment: Joint effect on person percep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0(3), pp.265-270.
- O'Hara, G. (1984). *The encyclopaedia of fashion: Introduced by Carrie Donovan*.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pp.175.
- Quadflieg, S., Flannigan N., Waiter, G. D., Rossion, B., Wig, G. S., Turk, D. J., & Macrae, C. N. (2011). Stereotype-based modulation of person perception. *NeuroImage*, 57, pp.549-557.
- Rade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p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pp.59-67.
- Reeder, J. G. (2010). *High style: Masterworks from Brooklyn Museum Costume Collection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Yale University Press, p.104.
- Riello, G. & McNeil, P. (2010). *The fashion history reader: Global*

- perspectives*. New York: Routledge, pp.167-171.
- Schacter D. L., Gilbert, D. T., & Wegner, D. M. (2012). *Psychology*. 민경환, 김명선, 김연진, 남기덕, 박창호, 이옥경, 이주일, 이창환, 정경미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pp.17, 364, 813, 824.
- Schnurnberger, L. (1991). *Let there be clothes: 4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Workman Publishing, p.351.
- Solomon, M. R., & Rabolt, N. J. (2007) *Consumer behavior in fashion*(2nd ed.). 이승희, 김미숙, 황진숙 역. 소비자행동과 패션. 서울: 시그마프레스, pp.403, 406.
- Steele, V. (1998). *Paris fashion: A cultural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46-248.
- Stokstad, M. (1999). *Art history*(revised ed.). Vol. 2,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pp.630-631.
- Tate, S. L. (1991). *Fashion handbook*.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pp.104-105.
- The Kyoto Costume Institute (2002). *Fashion: A history from the 18th to the 20th century*. Kyoto: Taschen, p.403.
- Thurston, J. L., Lennon, S. J., & Clayton, R. V.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9(2), pp.139-150.
- Tolkien, T. (2000). *Dressing up vintage*. New York: Rizzoli, p.143.
- Vrij, A. (1997). Wearing black clothes: The impact of offenders' and suspects' clothing on impression formation.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1, pp.47-53.
- Wilson, E. (2003). *Adorned in dreams: Fashion and modernity*. New York: I. B. Tauris & Co Ltd, p.189.

Winakor, G., & Navarro, R.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s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5(2), pp.40-48.

곽경호 (2013, 3. 25). 요즘 뜨는 브로치 패션, 어때요. *서울경제*. 자료검색일 2013, 3. 27, 자료출처 <http://m.hankooki.com>

오경희 (2013, 3. 21). 박근혜 대통령은 '완판녀?': 화제의 패션 소품들. *스포츠서울*. 자료검색일 2013, 3. 27, 자료출처 <http://www.sportsseoul.com>

윤희나 (2013, 3. 21). 최초 완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지갑, 가방 들었다 하면 품질. *bnt뉴스*. 자료검색일 2013, 3. 27, 자료출처 <http://bntnews.hankyung.com>

Rijksmuseum. *Portrait of Catharina Behaghel*, 1635. by Jacob Jordaens, Rijksmuseum, Amsterdam. 자료검색일 2013, 5. 30, 자료출처 <http://www.Rijksmuseum.nl>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Wearing of a Black Dress and Accessories on Image Perception

Kim, Sungmi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image perception and preference, an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age and monthly-income inferenc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a black dress and accessories, using woman in her 20s wearing a black dress as a stimulus.

As for the method of the quasi-experiment, between-subjects design was used. The measuring tools were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30 pairs of adjectives, and percipients were asked to rate on a 7-point scale to what extent each trait applied to the stimuli, and questions to make inferences about age and monthly-income of the stimuli. A total of 42 stimuli were composited using Adobe Photoshop 5.5, which included 24 color photographs(8×20cm) of a female model's full-length in a black dress with varied silhouette, skirt length, neckline and sleeve. The stimuli also included 18 color photographs(10×15cm) of a female model's bust-length in a black dress wearing a different combination of necklace,

earrings and corsage. The subjects were 646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and factor analysis, Cronbach's *a* reliability coefficient analysis, *t*-test, ANOVA, three-way ANOVA, four-wa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factorial analysis, the five factors were derived in the aspects of image perception of black dresses, which were individuality, femininity, professionalism, modernity and activity. Also the five factors were derived in the aspects of image perception of wearing accessories, which were professionalism, individuality, femininity, attractiveness and cuteness.

Second, through the study on the difference in image perception according to design factors of a black dress, it was found that the A-line skirt silhouette was highly evaluated in terms of professionalism and modernity, and the flare skirt silhouette was highly perceived in terms of femininity. A mini skirt was highly perceived in terms of individuality, modernity and activity, but it was not highly perceived in terms of professionalism. A round neckline was more highly perceived than boat neckline in terms of activity, and a sleeveless dress was more highly perceived than a short sleeve dress in terms of individuality, modernity and activity. There were interactions according to silhouette and neckline in terms of evaluation on individuality. A boat neckline was more highly perceived when accompanied by an A-line skirt silhouette, and a round neckline was more highly perceived when accompanied by a flare skirt silhouette in

terms of individuality.

Thir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difference in image perception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accessories, it was found that individuality and attractiveness were more highly perceived when a necklace was worn, but cuteness was not that highly perceived. Professionalism and individuality were more highly perceived when earrings were worn, and professionalism was more highly perceived when a corsage was not worn. As for the effect of interactions, professionalism, femininity and attractiveness were more highly perceived when only earrings were worn without a necklace than when both earrings and necklace were worn. Individuality was evaluated most highly when only a necklace, small earrings and a red corsage were worn, and was also highly perceived when a necklace, big earrings and a red corsage were worn.

Fourth, in terms of preference of skirt length, a mini skirt was the most preferred, followed by a knee-length skirt and a midi skirt. No necklace was more preferred than wearing of a necklace, and no corsage was the most preferred, followed by a white corsage and a red corsage. In terms of the effect of interactions, wearing either a necklace or earrings was more preferred than wearing both. If big earrings were worn, wearing a white corsage was preferred, and if small earrings were worn, wearing no necklace and no corsage was preferred.

Fifth, the study on the difference in image evaluation in item according to design factors of a black dress found that the A-line silhouette was perceived as sexy, intelligent and modern, and the flare skirt silhouette was perceived as conspicuous, feminine and lively.

Shorter skirts were perceived as sexier, more modern and more active, while knee-length skirts and midi-skirts were perceived as responsible, professional and intelligent. In addition, a sleeveless dress was perceived as more individualistic, modern and active than a short-sleeved dress. As for accessories, if a necklace was worn, it created more intense and conspicuous look, but it was not perceived as youthful or cute.

Sixth, through the study on difference in inference of age and income according to design elements of a black dress and wearing of accessories, it was found that an A-line silhouette was more strongly chosen to older age than flare skirt silhouette. As for skirt length, a midi skirt was more strongly linked to older age, followed by a knee-length skirt and a mini skirt. A sleeveless dress was more strongly linked to higher income than a short sleeve dress. As for accessories, wearing a necklace was more strongly linked to older age and high income than not wearing it, and it was perceived as more youthful if earrings were not worn. As for interactions, the wearing of small earrings and a red corsage was linked to the oldest age, and this was 26.7 years old. Non-wearing of earrings and a corsage was linked to the youngest age, and this was 24.5 years old.

Seventh, as for the preference of black dress wearers, femininity had the greatest effect, followed by modernity, activity, professionalism and individuality. As for the preference of accessory wearers, attractiveness had the greatest effect, followed by cuteness, professionalism, femininity and individuality. As individuality has a negative effect, the smaller the individuality, the stronger the preference.

In conclusion, the silhouette of a black dress, skirt length, neckline, sleeves and application of accessories had effects on the overall perception of a black dress. Notably, it was found that the wearing of accessories had more diverse effects on the evaluation of image than the design factors of a black dress. This implies that a black dress could create a variety of image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accessories, and that there were correlations among them.

<부록 2> 질문지

의복 이미지 평가에 관한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이미지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며, 각 문항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니 자신의 생각대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해 주신 조사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3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성민 드림
 지도교수: 이명희

I. 다음은 검정 드레스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양극으로 된 형용사입니다. 제시된 그림의 의복 인상에 대하여 다음 형용사의 해당되는 정도를 생각해 보고, 한 개의 번호에 표시(✓) 하십시오.

<응답 요령>

제시된 외모가 따뜻한 이미지보다 훨씬 차가운 이미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1번에 표시(✓)하십시오.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따뜻한 ----- 7 - 6 - 5 - 4 - 3 - 2 - 1 ✓ ----- 차가운

<사진번호=_____>

	매우 그렇다	중간	매우 그렇다	
1. 눈에 띄는-----	7	6	5	4 - 3 - 2 - 1 ----- 눈에 띄지 않는
2. 매력있는-----	7	6	5	4 - 3 - 2 - 1 ----- 매력없는
3. 전문직같은-----	7	6	5	4 - 3 - 2 - 1 ----- 전문직같지 않은
4. 발랄한-----	7	6	5	4 - 3 - 2 - 1 ----- 점잖은
5. 여성적인-----	7	6	5	4 - 3 - 2 - 1 ----- 남성적인
6. 상냥한-----	7	6	5	4 - 3 - 2 - 1 ----- 무뚝뚝한
7. 세련된-----	7	6	5	4 - 3 - 2 - 1 ----- 촌스러운
8. 개성있는-----	7	6	5	4 - 3 - 2 - 1 ----- 개성없는
9. 도회적인-----	7	6	5	4 - 3 - 2 - 1 ----- 도회적이지 않은
10. 이성적인-----	7	6	5	4 - 3 - 2 - 1 ----- 감성적인
11. 호감이 가는-----	7	6	5	4 - 3 - 2 - 1 ----- 호감이 가지않는
12. 자신감있는-----	7	6	5	4 - 3 - 2 - 1 ----- 자신감 없는

<부록 3> 자극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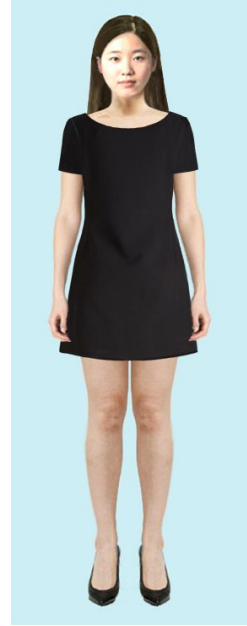
자극물 1



자극물 2



자극물 3



자극물 4



자극물 5



자극물 6



자극물 7



자극물 8

<그림 1>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넥라인, 소매의 조합에 따른 자극물 1~8



자극물 9



자극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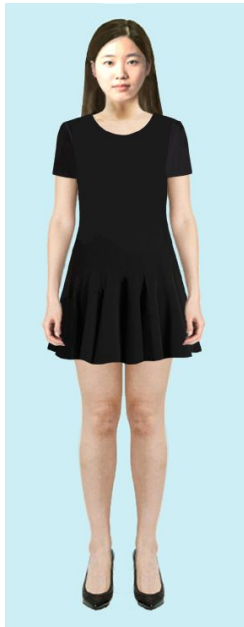
자극물 11



자극물 12



자극물 13



자극물 14



자극물 15



자극물 16

<그림 2>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네크라인, 소매의 조합에 따른 자극물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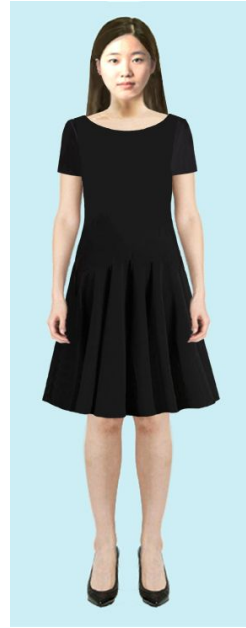
자극물 17



자극물 18



자극물 19



자극물 20



자극물 21



자극물 22



자극물 23



자극물 24

<그림 3> 실루엣, 스커트 길이, 네크라인, 소매의 조합에 따른 자극물 17~24



자극물 25



자극물 26



자극물 27



자극물 28



자극물 29



자극물 30



자극물 31



자극물 32



자극물 33

<그림 4>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조합에 따른 자극물 25~33



자극물 34



자극물 35



자극물 36



자극물 37



자극물 38



자극물 39



자극물 40



자극물 41



자극물 42

<그림 5> 목걸이, 귀걸이, 코사지의 조합에 따른 자극물 34~42